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 평화교육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김정래(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미국피츠버그대)

통 일 연 구 원

머 리 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은 기본적으로 평화 공존 상황을 전제로 하여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면서 조성한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여 남북한간 실질적으로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는 남북한이 1민족 1국가 1체제라는 기본 원칙에 합의한 상황 속에서 남북연합을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단일 체제로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면에서 적대감과 불신감을 완전 해소하고 통일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남북한 상황은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 본격적으로 단일 정치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하게 실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교육은 특히 평화 이념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남북한의 교육은 모든 교육이념과 교육정책,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등의 측면에서 완전하면서도 실질적인 의미의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 분야에서 남북 상호간의 비적대적인 이질적 요소를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여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간 상태에서 남북한 적대적 요소까지 완전하게 해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남북의 교육체제가 유기적인 결합과 실질적인 통합을 통하여 평화교육체제에 기반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교육은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이념과 교육목표에서 드러나는 차이만큼이나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실질적 통합을 실현하고 통일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 분야는 남북 연합을 통해 이미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 남북한

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남북한의 실질적인 교육통합을 통하여 남북한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하나의 평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의식, 가치관,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교육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한의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은 제도를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이념을 포함하는 의식과 가치관까지도 내면적으로 완전하게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로서는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여 평화 이념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교육통합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남북연합을 통하여 활발하게 공유하게 되는 교육적인 인식과 실천 틀 속에서 남북 공동의 대화와 왕래,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공동의 목적의식 속에 각종 교류와 협력 사업을 단일화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본격적으로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남북한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통해 교육분야의 실질적 통합을 이루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 요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추진할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다음 단계로서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남북한 공동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한 남북한 교육통합방안 연구의 최종 3년차 연구로서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통합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제1차년도 연구는 남북한 화해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통일교육 방안, 제2차년도 연구는 평화공존 상황을 전제로 하는 남북연합 시기의 교육 공동체 구현 방안을 제안하였다. 앞의 연구에 대한 최종 집적물로서 금년도 제3차년도 연구는 실질적 통합을 위한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교육통합의 과제로서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일환으로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실질적 통합 단계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전문가 및 대북한·통일 정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여

기에 참여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이와 함께 미국에 체류하면서 현지의 평화교육 실천활동을 소개해 줌으로써 향후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평화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한만길 박사님께 감사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한 우리 연구진 이상숙 선생, 그리고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2002년 12월

연구진 일동

요약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2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산하 7개 국책연구기관과 2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여 상호간 화해 협력 및 평화 공존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경제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특수한 기능적인 연계 속에서 완전한 통일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남북한의 교육은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적대적 요소를 해소해 가면서 실질적인 제도와 국민의식 등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남북의 교육체제가 유기적인 결합과 완전한 통합을 통하여 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통일연구원이 주관한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들의 통일공동연구 중 교육 분야를 담당한 연구였다.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시행된 이 연구는 남북한 통일구상에 대한 각 분야별 미래 비전 및 건설적인 통일 사회를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1차년도인 2000년은 '남북한 화해협력을 위한 통일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남북한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일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과 개선 과제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었다. 2차년도인 2001년도는 '남북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통합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남북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평화공존상황에서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의 영역에 대한 교육통합 구상을 제시하였다. 금년도 제3차년도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연합 이후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완전하게 구축하고 실천해야 할 교육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남북한 각 지역은 상호 통합을 위하여 교육적인 교류·협력은 물론 교육제도, 교육이념, 교육과정, 교육행정 등의 여러 분야에서 완전하게 적대 감정을 해소하고 제도적·의식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의 완전한 교육 통합을 통하여 주민들이 서로 운명공동체이면 동일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향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 실질 통합을 통하여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남북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통합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이제 남북한은 평화 공존을 통하여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남북한 각자의 이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의 과제를 모색하는 일은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북한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상호 공존하면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남북한의 평화를 존중하고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남북한의 학생과 국민들에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와 의식을 심어 주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하는 기본과제라고 할 수 있다. 평화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은 통일교육의 새로운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평화교육의 관점은 중요한 과제를 제시해 줄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평화교육의 이론적 논의와 실천 사례는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또는 국가간, 민족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사회에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종 갈등과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사례가 교육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원리와 태도를 형성시켜 줌으로써 건전한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평화교육은 인종갈등과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하여 상호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형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자유와 인권에 기초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인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평화교육은 갈등적 사회상황 속에서 상호 공존과 배려, 이해와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화교육체제의 구축 방안과 실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의 실질적인 평화와 통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평화교육의 접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평화교육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북한과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과정 등의 개혁적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화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의 교육통합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남북한의 단일화된 체제로서의 교육이념, 교육과정, 교육제도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연합 이후 실질적 통합을 이룩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이념으로서의 ‘평화’, 즉 민족적 공동체로서의 ‘평화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통일교육의 새로운 실천 방안을 명확하게 재정립하는 기회가 된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 통합 단계의 과제는 남북연합단계의 과제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단계에서는 각 분야별 협력이 공고화되어야 하며, 국가통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를 협의하고 국가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각 분야에서 협력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통일의 후유증이 완전히 제거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통일 후 체제통합의 효과적인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 단계를 성공리에 마무리하면서 남북한 통일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중대한 실질적 통합단계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남북연합 이후 실질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 공존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데에 있어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 평화교육의 필요성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합 단계의 제도상의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의 기반이 되며 사람들이 적대적 감정이 완전 해소되고 상호 평화적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통합 단계에 부합하는 의식과 행동을 길러낼 수 있는 평화 구축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과거 남한의 반공 교육이나 북한의 주체 교육 사상을 초월하여 남북한 통합 단계의 통일 사회에 어울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교육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남북의

평화공존을 도모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평화 교육은 남과 북이 교육이념, 교육과정, 교육제도 등 각 분야에서 상호간의 호환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이 가능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남북연합 이후 실질적 통합 단계를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통일 사회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요소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통일 이후의 제3의 교육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화’ 역시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가 활용하고 있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평화교육체제는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원정책을 포함하는 교육행정 등의 영역을 완전 통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기법 상으로 보면, 적극적인 평화교육과 적극적인 교육통합이 확실성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확실성으로 놓고, 이 조건 아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를 추출해 내는 것이다.

(1단계: 적극적인 평화교육) 평화교육을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남북연합 이후 남북한 지역간의 실질적 통합에 따른 적대감정 해소 등 상호이해를 강조한다. 이해 없는 다음 단계의 통합이란 불가능하므로 남북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신장시키는 데에 주력한다.

(2단계: 교육제도의 통합) 다음 단계로서 교육제도의 통합을 모색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교육제도라는 것은 학제, 자격체제, 교원양성체제, 교육행정조직 등의 일체의 교육운영체제를 의미한다.

(3단계: 교육내용의 통합) 여기서 교육내용이라 함은 교육과정학에서 언급되는 교육내용이 아니라 교육을 구성하는 내용을 일컫는다. 남북한의 실제 교육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교육용어, 남북한이 각기 지향하는 교육목표(수업목표와 같은 미시적 차원의 교육목표), 교육평가체제, 교과목의 수, 교과과의 통합 가능성, 교육설명(교육이론) 체제 등을 완전하게 통합한다.

위의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연구함에 있어서 통합의 의미가 가져다주는 혼선을 피하고 ‘통합’의 핵심을 이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시나리오 기법의 핵심인 ‘호환성’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위의 표는 다음과 같이 재구

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2단계와 3단계의 통합에서 시나리오를 통하여 남북한 체제에서 사용되는 교육제도와 교육인프라, 자격제도 등과 같은 내용의 호환체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의 세 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하부 영역에서 상호 호환 가능한 변인을 확정적 변인으로 하고 이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불확정적인 변인으로 하여 시나리오 상황을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제도 분야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분야는 법령의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상호간에 비교적 쉽게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법령의 개정을 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남북한 상호 학력 인정, 대학입학자격의 호환, 남북한 교원의 학술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서 의무교육제도의 통합이 있는데, 이는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가장 큰 교육적 과제라는 점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남북한 상호 학력 인정의 핵심은 남북한간의 학제의 차이를 해소하는데에 있다. 남한의 6-3-3-4제와 북한의 4-6-4제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상호 인정을 할 것인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 이질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북한의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남한의 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초·중등학교 과정에서 모자라는 북한의 2년이 문제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입학 자격의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학제상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문제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대학 입학에 위하여 북한의 10년의 학령을 가진 자에게 남한의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하였을 경우, 야기되는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가 심각할 경우, 남한의 대학에 조건부로 입학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남한의 대학에 입학에 허용하되, 과거의 예과(豫科)처럼 1-2년간의 기본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와는 반대로 남한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북한의 대학에 이수할 경우, 몇몇

이수과목 면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교원제도 통합의 경우, 초등교사, 중등교사, 대학교수들의 기존 법적 체제 정비를 통해 이에 대한 확정적인 요인을 토대로 야기되는 문제 점을 예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분야로서 교육과정의 영역은, 교육제도의 영역보다 훨씬 통합이 어려운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가장 적대적이었던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용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교재의 완전통합, 이수 학점의 인정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교재의 완전 통합과 통합교과의 개발은 남북한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어와 역사 교과서 교재의 개발을 확정적인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두 교과에 남북한 어느 한 쪽의 이념적인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는 이를 배제하고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 학생의 이수 학점 또는 성적의 인정은 무엇보다도 교육내용, 즉 교과서가 다르며, 교육과정 상의 이수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고려해야 한다. 학점이나 이수 성적의 상호 인정을 피하고자 한다면, 남북한의 학점이나 성적 이수 체제를 먼저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이후 호환 가능한 요소를 확정적인 변인으로 잡고, 불확정적인 요인으로 예상되는 문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끝으로, 교육행정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적 결단 등과 같은 비교육적인 요인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분야이면서도 그 가시적인 성과를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남북한 정부차원의 교육협력기구의 구성 문제, 북한의 교육재정 지원 문제, 기타 남북한 교육협력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정부 차원의 교육협력 기구의 구성은 중앙정부차원과 지방정부차원의 교육기구를 완전 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방정부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지방자치 단위를 지칭한다. 여기서 확정적인 요인은 각기 차원에서 누가 기구의 구성원이 되는가의 문제, 어떤 교육과제와 사업이 이 기구의 기능이 되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불확정적인 요인을 추출·고려하면 시나리오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

북한의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 문제는 북한이 표방하는 무상의무교육이 명실공히 무상의무교육이 되려고 한다면, 재정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를 확정적인 변인으로 잡아야 한다. 특히 남한이 현재 9년제 무상의무교육을 완벽하게 실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상호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확정적 변인을 설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교육통합 사업은 다양한 경로와 분야를 통하여 마련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남북한이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시나리오 상황에서 확정적인 변인을 설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여기서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최우선의 조건은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상호 이해와 화합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남북한은 통일을 추구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상호 이해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남북한은 상대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호 적대감을 완전하게 해소하고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남한이 북한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북한 이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남한 사회 안의 평화를 먼저 중시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의 접근 방향으로서 우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 안에서의 평화, 즉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케 해야 한다.

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 통합을 위한 기반은 사회정의와 국민복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번영이 통일의 물질적 토대를 이룬다면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의 실현은 국민적 통합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정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사회 내부의 화합과 평화는 보다 많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이 성과를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 측면에서 다원주의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가 보다 존중되는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적 화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

가적 과제(課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교육의 방향으로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평화의식의 배양은 남북한의 냉전체제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갈등과 대립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 내용	4
가.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통일교육	4
나. 평화교육의 이론과 쟁점 분석	4
다. 평화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	4
라.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분석	4
마. 남북한의 통합을 위한 평화교육의 실천 과제	5
4. 연구 방법	5
가. 평화교육에 관한 문헌 연구	5
나. 평화교육의 실천 사례 분석 및 원고 용역 의뢰	5
다. 평화교육 관계 기관 출장 및 전문가 면담	5
라. 남북한 교육통합에 관한 연구 협의회 개최	5
마. 남북한 교육통합 및 평화교육체제 구축 시나리오 기법의 활용	6
II. 실질적 통합단계의 평화교육	7
1. 실질적 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7
가. 남북통합에 대한 통합이론의 적용	7
나. 남북한 통합단계에서 실질적 통합의 의의	9
2.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와 평화교육	15
3. 실질적 통합단계 평화교육의 방향과 원리	18
가. 평화교육의 방향	18
나. 평화교육의 원리	19

4. 실질적 통합단계 평화교육의 실천 사례	23
가. 평화와 평화 만들기 학습	23
나. 갈등이해 학습	29
다. 갈등해소 학습	34
라. 중재 학습	37
III. 실질적 통합단계의 평화교육체제	42
1. 평화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 시나리오	42
가. 상황의 설정	42
나. 시나리오 기법	43
다.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의 시나리오 설정	44
2.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시나리오	49
가.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교육 전개 과정	49
나. 남북한 실질 통합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53
IV.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56
1. 교육제도 통합 방안	56
가. 통합의 기본 전제와 방향	56
나. 교육제도의 실제 통합 방안	59
2. 교육과정 통합 방안	75
가. 교육과정·교과서 통합의 기본 전제와 방향	75
나.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통합방안	79
V. 결론 -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 과제	101
1.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보는 통일교육	101
2. 향후 평화교육의 과제	103
가. 북한 사회 이해 교육	103

나. 완전한 평화 정착을 위한 교육	106
참 고 문 헌	109
<부록 1> 평화교육 운영 단체 사례	112
<부록 2> 평화와 평화 만들기 교육 사례	116

표 목차

<표 II-1> 실질적 통합단계의 개혁과제	15
<표 II-2> 평화추구자와 평화방해자의 행동양식 비교	25
<표 III-1> 교육체제 통합형태	45
<표 III-2> 교육통합과 평화교육	46
<표 III-3> 교육통합의 단계	47
<표 III-4> 교육통합의 경우 고려해야 할 항목	48
<표 III-5> 평화의 개념적 열개	51
<표 III-6> 평화의 개념과 평화교육의 양태	52

그림 목차

[그림 Ⅱ-1] 통일 단계별 구분	14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그 동안 남북한은 평화 공존을 통하여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하는 교육을 실천해 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남북한은 상호 대결적이며 경쟁적인 교육을 지속하여 왔다. 남한에서는 과거 반공교육 또는 통일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경계하거나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교육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남조선 해방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려는 교육을 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은 한 민족이며 동포이면서도 학생과 주민들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교육해 온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남북한은 상호 공존과 평화를 통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을 실천해 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정하고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어느 일방의 존립만을 강조하는 교육을 지속해 온 것이다.

남한에서는 반공교육, 승공교육, 멸공교육, 통일안보교육, 이념교육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교육은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공간을 재통합시키기 위한 동질성 회복의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남북한간의 이질화 및 적대감만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과적으로 통일교육은 남북한 주민간의 이해와 화해의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근본적인 장애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제 남북한은 평화 공존을 통하여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남북한은 남북한 각자의 이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의 과제를 모색하는 일은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북한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상호 공존하면서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2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과제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남북한의 평화를 존중하고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남북한의 학생과 국민들에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태도와 의식을 심어 주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하는 기본과제라고 할 수 있다. 평화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은 통일교육의 새로운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평화교육의 관점은 중요한 과제를 제시해 줄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남북한이 실질적인 통합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통일교육으로서 평화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과정 등의 교육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 평화교육의 관점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통일교육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남북한이 상호 평화적인 공존을 모색하고 이해와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한의 통합을 준비하는 평화교육체제의 구축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평화교육의 이론적 논의와 실천 사례는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또는 국가간, 민족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사회에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종 갈등과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사례가 교육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교육적 노력으로서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육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상호 경쟁적으로 보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원리와 태도를 형성시켜 줌으로써 건전한 민주 시민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다. 반면에 평화교육은 인종갈등과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하여 상호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형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자유와 인권에 기초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인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평화교육은 갈등적 사회상황 속에서 상호 공존과 배려, 이해와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평화교육의 과제는 전쟁 방지와 사회갈등의 해소를 통하여 평화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적 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대립의 문제를 평화교육의 관점과 실천 방법을 통하여 해소하려는 시도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간의 갈등은 세계적으로 첨예한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는 2001년 9월 11일 여객기 납치 폭과 사건으로 인하여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쟁방지와 갈등해소, 그리고 평화공존의 문제가 교육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안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종분쟁과 전쟁, 사회갈등의 문제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평화교육체제의 구축 방안과 실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의 실질적인 평화와 통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평화교육의 접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평화교육적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북한과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과정 등의 개혁적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평화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의 교육통합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남북한의 단일화된 체제로서의 교육이념, 교육과정, 교육제도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연합 이후 실질적 통합을 이룩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이념으로서의 '평화', 즉 민족적 공동체로서의 '평화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통일교육의 새로운 실천 방안을 명확하게 재정립하는 기회가 된다고 할 것이다.

3. 연구 내용

가.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통일교육

-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배경
- 통일교육의 개념 정의
- 평화교육의 개념 정의
- 평화교육과 유사 개념 : 민주시민교육, 상호이해교육,

나. 평화교육의 이론과 쟁점 분석

- 평화교육 논의의 배경과 전개
- 평화교육의 이론
- 평화교육의 접근 모형
- 평화교육의 실천사례 분석
-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평화교육

다. 평화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

-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체제 이해
- 남북한 통합 이념으로서의 '평화교육'
- 평화교육체제 구축과 실천 방향

라.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분석

- 교육통합을 위한 '평화' 이념 이해
- 남북한 교육제도 부문의 통합 방안
- 남북한 교육과정 부문의 통합 방안
- 교육통합을 통한 평화교육체제의 이해

마. 남북한의 통합을 위한 평화교육의 실천 과제

- 평화교육에 기초한 통일교육 접근 방향
- 남한의 통일교육 및 평화교육의 실천 방안
-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평화교육의 내용 체계

4. 연구 방법

가. 평화교육에 관한 문헌 연구

- 평화교육의 개념과 이론에 관한 문헌 분석
- 평화교육의 역사와 변천 과정에 관한 문헌

나. 평화교육의 실천 사례 분석 및 원고 용역 의뢰

- 평화교육의 국내외 실천 사례에 관한 문헌 수집
- 평화교육의 실천 프로그램 수집 분석
- 평화교육의 실천 사례에 관한 원고 용역 의뢰

다. 평화교육 관계 기관 출장 및 전문가 면담

- 평화교육 관계 기관 출장
- 평화교육 관계자 면담 및 면담 결과 정리 및 번역 용역

라. 남북한 교육통합에 관한 연구 협의회 개최

- 평화교육의 개념과 접근에 관한 연구 협의회 2회
- 평화교육의 실천 사례 분석 협의회 2회
-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방안 모색 협의회 2회

마. 남북한 교육통합 및 평화교육체제 구축 시나리오 기법의 활용

- 주요 외국의 평화교육 활용 사례 및 동향을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서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
- 남북한 실질 통합 단계에 대한 교육정책의 접근 방식에 대한 검토
- 실질적 통합 단계의 남북한 교육제도·교육행정·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조사 겸용.
-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실질적 통합 단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시나리오 기법으로 수렴.

II. 실질적 통합단계의 평화교육

1. 실질적 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체제통합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통일방안의 기본틀과 지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즉, 통합의 접근모형에 따라 통합과정 및 통합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교육체제의 통일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통합모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서는 사회집단이나 국가들이 교육에 대한 하나의 공동체로 결합되어 가는 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일반적 통합이론에 관하여 개관하고, 다시 이러한 이론을 남북한 교육통합문제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가. 남북통합에 대한 통합이론의 적용

통합이론은 비교적 동질적인 국가들이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로 결합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다. 따라서 통합이론은 남북한과 같이 이념적으로 분단되어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분단국의 통일문제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¹⁾ 그러나 국제사회의 현실 변화와 맞물려 전개되어온 통합이론은 비록 전반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실제적인 통합과정에서 실정에 맞는 접근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게 해 준다.

1970년대 초반 이후 남한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원용된 이론은 기능주의 이론으로서 통일정책 이론의 기본틀로 인정되어 왔다. 제5공화국국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나 제6공화국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그리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바탕을 둔 문민정부의 통일방안도 기본적으로 기능주의 이론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1) 민족통일연구원, 『남북연합 형성 및 운영 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42.

의 통일방안은 정치적 분야에서의 일괄적 타결에 의해 모든 분야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간다는 연방주의 통합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한의 상황에서 본다면, 50년이 넘는 분단 상황을 지속해오면서 사회적 이질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그리고 과거 군사적 충돌의 역사에 따른 상호 불신의 골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타결에 의해 일시에 통합할 것을 주장하는 연방주의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

한편, 한 부문에서의 협력이 다른 부문의 협력으로 파급된다는 것을 전체로 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은 유럽의 통합사례에서도 보여주듯이 경제·기술적 영역만의 협력에 의해서는 정치통합, 경제통합은 물론 교육통합까지도 심화시켜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이념과 체제의 이질성이 큰 남북한 사이에서 기능주의적 접근은 통합과정을 지체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신기능주의 이론에서는 실질적 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즉, 분단국 정치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능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분야의 통합을 성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³⁾

남북한의 통합은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서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공동이익을 확대하며, 사회적 동질성 회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추진력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결단을 통하여 남북한간의 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결단이 선행되어야만 남북한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2) 사회적 이질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치적 타결에 의해 일시적 통합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재분열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것은 통일아랍공화국과 예멘의 사례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3) 김승채,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안적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전략적 통합모델의 가능성”, 『평화연구』(9) (서울: 고려대학교, 2000), p. 82.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교육 통합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평화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교육이념·제도 및 교육과정 등의 통합 방안, 그리고 남북한 지역간 교육격차와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구상, 교육전문가 및 교육엘리트 등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의 교육 통합과정은 양 체제의 호혜적 관계를 확대하고 상호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점진적인 기능주의적 접근을 취하면서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평화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신기능주의적 방식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남북한 통합단계에서 실질적 통합의 의의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이 단일영토, 단일정부, 단일 법체계를 갖춘 조직체로서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의 통일정책 방향은 남북한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점진적·단계적 통일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한 양 체제간 기능적 상호의존성을 형성하는 통합과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즉, 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북한이 각 부문의 유기적 상호의존을 형성하고 발전시켜 가는 통합과정의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통합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통합의 진척 수준에 따라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합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각 단계의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통합과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의 3가지 단계에 따라 각 단계의 상황적 특성과 요구되는 통합의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를 추가하고, 그 의의와 과제를 정립해 본다.

(1) 남북한 통일단계

(가) 남북화해·협력 단계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인 ‘민족공동체’는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근간이며 우리 민족이 재결합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통일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이다. 이러한 민족공동체 실현의 첫 번째 단계인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냉전구조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화해적 공존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간의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라 하겠다.⁴⁾

이 단계에서는 ‘1민족 2국가 2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간 사회·문화·경제·교육 등 분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의해서 남북간 평화공존체제가 정착되는 단계다. ‘남북기본합의서’ 및 각종 ‘부속합의서’의 실천에 의해서 남북 화해·협력관계가 제도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됨으로써 남북 화해·협력이 공고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단계에서의 주요과제인 남북간 불신 및 적대관계의 청산,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은 다음 단계인 남북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나) 남북연합 단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해·협력 단계는 상호간의 신뢰를 증진시킴으로써 두 번째 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데에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 통일논의의 환경을 조성하고 통일준비의 기초를 제공하지만, 본격적인 통일의 준비는 남

4) 박영호, 박종철,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137.

북연합 단계에 진입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 단계는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구축, 평화공존이 정착·제도화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통일국가로 탄생할 때까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

통일이 될 때까지의 과도체제로서 특수한 기능적 결합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연합의 체제적 특징은 연합정부는 대외적으로 제3국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주권성을 갖지 않으며, 남북한 각기 주권을 가지고 정치·외교·군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2체제 2정부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남북한간에는 국제법상의 관계가 아닌 국내법에 준하는 특수한 법적 유대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⁵⁾ 이렇게 볼 때, 서로 다른 체제로 분리된 단일민족이 재결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구상된 남북연합이라는 결합형태는 대내외적으로 모순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연합 단계의 진입을 위해서는 먼저 남북 화해·협력이 성숙되는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 당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남북연합체제가 구성되려면 ‘남북연합헌장’이 채택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남북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요컨대, 남북연합이라는 과도적 체제는 남북통일의 순간까지 통일을 위하여 추구하여야 할 한민족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이 단계에서 포괄적이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다) 통일국가 : 1국가 1민족

마지막 단계인 통일국가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써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 통일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통일의 완성은 통일헌법이 제정·발효되는 때가 기점이 될 것이

5) 통일원,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2), pp. 85~86.

다. 남북연합 후기에 남북간의 공존공영이 정착됨으로써 통일여건이 완비되어 가면, 최종적으로 남북한은 남북평의회를 통해 통일헌법안을 마련하여 이를 남북한 주민 전체의 국민투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통일국가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국가단계는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을 통해 통일정부를 결성함으로써 선진민주국가를 건설하고 평화통일을 완성하는 단계, 곧 '통일헌법'의 이행·실천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교육 분야는 남북 연합 이후 상호 공유하고 있는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 분야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이념을 단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동질화시키는 작업까지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통일헌법이 이행·실천이 되었다고 해서 남북간의 통합의 과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단계까지 논의하고 제도화시켜온 내용을 실제적으로 구현하여야 하는 과제가 통일국가 단계 초반에 여전히 상존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완전한 통합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2) 실질적 통합의 의의

(가) 실질적 통합 단계의 정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간 화해·협력이 이루어지고 통일을 위한 과도기단계로서 남북연합이 구성되면 모든 부문에 걸쳐 본격적인 통일의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준비가 마무리되어 짐으로써 명실공히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구축할 수 있다. 여기서 남북연합의 형태에서 통일국가로 들어서는 시점은 남북한 통일의 전과정을 통틀어 가장 중요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준비단계를 거친다고 할지라도 남북연합의 2국가 2체제에서 막상 1국 1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갈등, 실제적인 이행문제 등 한꺼번에 무수한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장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남

북연합에서 통일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전환시기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보다 세분화된 단계로서 실질적 통합단계를 상정하여 대비하는 것이 커다란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상정한 실질적 통합단계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통합의 단계에서 별개의 새로운 단계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인 남북연합을 확립한 그 시점부터 통일을 목전에 두고 통합준비의 완성 또는 실제적인 실행이 진행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체제에서 통합이 제도화되어 모든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정착된 시기이며,⁶⁾ 법·제도적 국가 통합의 최종 단계만 남겨 놓고 있는 통일의 전 단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동안의 모든 준비과정도 중요한 것이지만, 실질적 통합시기야말로 통일을 완수하기 위한 양적·질적 통일과제가 집중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남북연합 단계를 통틀어 본다면 초기에는 주로 그 동안의 화해·협력을 보다 더 긴밀한 협력·유대관계로 이끄는 것과 남북연합체제를 형성시키고 공고히 하는 것,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군사 등 모든 부문에서 통일국가의 기본체제에 관한 남북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진행되고 남북연합이 제도화되어 정착되면 비로소 실질적 통합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질적 통합단계는 남북연합체제의 제도화가 심화되고⁷⁾ 공고해지는 남북연합의 성숙기를 의미한다. 이 때부터는 문자 그대로 남북 통합에 있어서 실질적인 부문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제도적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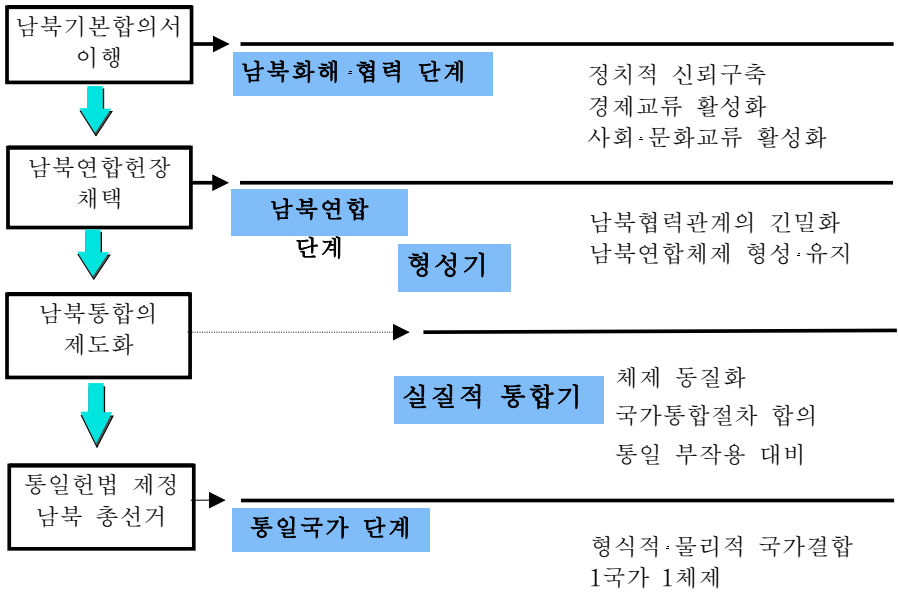
6) 동서독의 경우, 실질적 통합은 1990년 5월 18일 동서독간 ‘화해, 경제 및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이후 가속화되었다.

7) 통합과정에서 통합정도의 고도화를 달성하는 것은 통합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결정된다. 즉 합법적 절차 및 과정에 의한 통합은 제도화가 높은 상태로서 통합체제의 안정성이 높다. 반대로 통합과정의 비제도화 상태에서는 통합체제의 안정성이 낮아지게 된다. 통합에 필요한 제절차를 통합에 임하는 두 체제간 상호 합의하에 확정짓는 것이 통합의 제도화에 중요요소가 된다.

Samuel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New Haven: Yale U. Press, 1968), p.12. ; 김도태, “남북한 통합에 대한 신 기능주의적 이해”, 『국방논총』, 제20호, 1992, p. 39.

일을 이루기 이전에 남북 양 체제가 실질적인 부문에서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자체적인 체제변혁을 통해서 체제적인 동질성을 미리 확보하고 이질적 체제의 결합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두 개체를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국가로 두 체제가 결합하는 데에 따르는 구체적인 세세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통일단계의 구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1] 과 같다.



[그림 II-1] 통일단계별 구분

(나) 실질적 통합단계 교육의 과제

실질적 통합 단계의 과제는 남북연합단계의 과제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단계에서는 각 분야별 협력이 공고화되어야 하며, 국가통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를 협의하

고 국가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각 분야에서 협력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따라서 통일 의 후유증이 완전히 제거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통일 후 체제통합의 효과적인 달성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 단계를 성공리에 마무리하면서 남북한 통일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중대한 실질적 통합단계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남북한 교육통합에서 중요한 부문으로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과정 부문을 중심으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예측해 본다.

<표 II-1> 남북연합 이후 실질적 통합단계의 개혁과제

	남북연합	
	초기 : 형성기	정착기 : 실질적 통합기
교육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연합 공동교육이념 구상 - 교육이념제정위원회 설치 - 평화교육체제로의 전환준비 -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공유의 교육이념 제시 - 통일교육법을 통한 교육 안정 - 평화교육체제로의 완전 전환 - 남북교육공동체 구현
교육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지역간 표준교육제도 - 교육정책 공동개발 및 교환 - 학술·교류 협력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교육제도·행정 통합 - 표준학제를 통한 개혁 추진 -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정책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적대적 교과내용 교류·공유 - 학생·교사 등 교환교육·연수 (학술행사, 유학, 연수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공동체의식 고취 - 새로운 체제에 대한 시민교육 - 교과내용의 완전 통합

2.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와 평화교육

남북한 사회가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각 단계별 노력을 고려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화해협력 → 평화공존 → (국가연합) → 실질적 통합 → (통일)]

그런데 현재 한반도의 상황으로 볼 때,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반도가 비우호적 공존에서 우호적 공존의 상황으로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후에만 남북의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라던가 경제, 정치, 사회의 불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우호적 공존상태에서 우호적 공존 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이 상호 평화 공존을 통한 실질적인 통합 단계로 가는 첫걸음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교육적인 전제로서 평화교육의 기본 원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상호평화 공존은 먼저 자기와 더불어 같이 사는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공존이 될 수 있다.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서로 공존 대상으로 인정하고, 양쪽의 존재를 서로 완전하게 이해하고 적대 의식을 해소할 수 있어야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남북이 서로 국가적 존재, 정부적 존재, 체제적 존재를 극복하는 상황 위에서 상호간 존재를 완전하게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남북한이 상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정체성과 상징을 완전 해소하고, 국경적 개념을 극복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정서적 이해, 그리고 지역 개발 차원에서 적극 공조할 수 있는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화’의 개념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평화’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직접적 폭력을 방지하는 ‘소극적 평화’ 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및 문화적 폭력을 방지하는 ‘적극적 평화’를 고려해야 한다. 실지로 소극적 평화는 사회 안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흔히 냉전시대의 평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평화공존은 향후 평화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셋째, 남북연합 이후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도 평화구축의 과정은 복잡하여 장기간의 시일을 필요로 한다. 남북한이 우호적 평화공존을 구축한

연합 시점에서 실질적인 통합과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로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처리 문제, 그로 인하여 미국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평화적 협상 문제, 남북한 지역 경제 관계, 평화협정을 통일헌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런 제반 문제의 해결은 남북한이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여 실질적인 통합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남북 지역간 협조와 화해의 공존으로 진전할 수 있다. 남북연합을 시점으로 하는 이 협조와 화해의 실질적 통합 단계는 다방면에서 남북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남북한 단일정부를 구성하는 상황 속에서 민족 공동체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인프라 구성 및 환경, 정보, 우주 산업 등과 관련된 교육투자 등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넷째, 남북연합 이후 실질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호 공존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데에 있어서 빠트릴 수 없는 것이 평화교육의 필요성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합 단계의 제도상의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의 기반이 되며 사람들이 적대적 감정이 완전 해소되고 상호 평화적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통합 단계에 부합하는 의식과 행동을 길러낼 수 있는 평화 구축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과거 남한의 반공 교육이나 북한의 주체 교육 사상을 초월하여 남북한 통합 단계의 통일 사회에 어울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교육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남북의 평화공존을 도모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다섯째, 평화 교육은 남과 북이 교육이념, 교육과정, 교육제도 등 각 분야에서 상호간의 호환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이 가능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남북연합 이후 실질적 통합 단계를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통일 사회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요소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통일 이후의 제3의 교육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화’ 역시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가 활용하고 있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평화교육체제는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원

정책을 포함하는 교육행정 등의 영역을 완전 통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3. 실질적 통합단계 평화교육의 방향과 원리

가. 평화교육의 방향

우선 평화의 개념을 세 가지 수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평화는 사회 정의라는 관점에서 그 개념과 뜻을 고려할 수 있다. 사회 정의로서의 평화는 개인적인 면에서나 사회적 또는 국제적인 면에서 제일 불리하고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또는 국가를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평화의 개념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정의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가치관을 연구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고 있다. 또한, 사회에서 조직적 폭력을 배격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이다. 세계에 어느 곳에서도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무장, 비핵화, 군비 축소를 주장하며 모든 전쟁기구와 전쟁 물자 생산 기관에 대항하여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고 있다.

셋째, 평화는 전쟁을 없애는 행동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또는 국제생활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분쟁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학습하여 습득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평화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존엄성과 일체시키는 작업을 거치는 것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동일 환경 혹은 이질적인 환경에 있는 모든 인류에 대해 상호 이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확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평화의 제 조건을 고려할 때, 평화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에서 평화롭게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인

간의 염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동일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화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데 꼭 알아야 할 사상, 개념, 그리고 기술과 방법을 학습하게 하여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가정, 지역사회 및 세계사회에서 평화를 증진시키는 인간의 의식적이며 이성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남북연합 이후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평화교육은 남북 지역간 격차 해소 및 그간의 이질적인 환경과 속성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협력할 수 있는 민족의식과 평화의식을 길러주는 것에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어느 장소나 시간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 주민은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통일 사회에서 필요한 학습행동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신적 공황을 포함하는 심리적·물리적 갈등과 분열을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남북통일의 문제도 갈등과 분쟁의 관계를 완전하게 해소하는 교육활동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남북간 심리적·물리적 갈등을 완전 해소하는 민족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주민들이 평화의 사상, 평화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함으로써 ‘평화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나. 평화교육의 원리

평화교육은 인간의 이성적인 행동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잘 관리하여 조정하고 평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행동이 모두 다 평화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평화교육도 평화공존 시대의 성공적인 평화교육 경험에서부터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그런 측면에서 평화공존적 상황의 평화교육 원리를 확대·계승한 남북연합 이후 민족공동체 구성과 관련된 실질적 통합 단계의 평화교육 원리를 정리한 것이다.

① 평화 교육은 기본 교육이다.

인간은 누구나 분쟁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은 누구나

다 평화롭게 살려고 하며 사회에 평화를 이룩하는데 공헌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화 교육은 사회 생활에 기본이 된다. 누구는 평화교육이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서의 선별적인 교육상황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이면 다 평화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히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 구성원들은 남북한의 지역 정서를 떠나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의식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평화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평화 교육은 전 생애 교육이다.

평화 교육은 일시적 또는 일회용적인 교육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평생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평화교육은 남북 지역 상호간 지난 시절에 겪었던 분단의 역사와 향후 건설해야 할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확립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평화교육은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차원, 혹은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③ 평화 교육은 조기 교육이어야 한다.

인간은 나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며 개인의 습관은 어려서부터 발생하며 고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분쟁의 해결을 평화적으로 하는 방법과 기술을 습득하여 도전적이며 적대적인 행동이라던가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특히, 실질적 통합 단계 이후 남북한에서 출생한 세대부터는 분단 당시의 적대 감정 등이 완전 해소된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체제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차세대에게 적합한 평화교육은 미래 지향적인 민족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과 원칙 등을 중점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평화교육은 어린 나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 지역 주민간 격차 및 차별의식 등을 완전 해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④ 평화 교육은 가정 교육이다.

거의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가족 또는 가정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집단 속에서 행동을 하면서 경험을 얻고 그런 과정에서 지식, 감정, 그리고 습관을 터득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가족이나 가정 속에서 인간

관계를 맺고, 배우게 되기 때문에 평화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특히, 남북한 지역의 각 주민들은 각 가정 상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지역 차별 및 지역격차 의식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적인 훈련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⑤ 평화 교육은 지역 공동체 교육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 속에서 상부상조하면서도 인간이 지닌 이기심 때문에 분쟁이 야기된다. 분쟁은 가정에서도 생기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다. 그렇게 때문에 지역사회를 더욱 공고히 하여 서로 더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평화 교육은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은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북한의 지역 개발을 위해서 평화교육이 지닌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⑥ 평화 교육은 사회 도덕 교육이다.

평화 교육은 교육 대상자들이 자기들의 사회 체제를 학습하여 이해하고 그들의 사회를 더욱 평화롭게 만들게 하는 교육이다. 그렇게 때문에 평화 교육은 소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이어야 한다. 적극적 평화 교육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를 더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모든 불평등, 부정을 폭로하고 평등과 정의를 이룩하려고 하는 개인을 교육하는 것이다.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채택하게 되는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의 사회 체제를 북한 지역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적응시키기 위해서 평화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⑦ 평화 교육은 다문화적 교육이면서 교차 문화의 교육이다.

인간 사회의 분쟁은 같은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같은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보다는 문화가 상이한 사람들간의 분쟁이 더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해당 집단·민족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평화 교육은 다문화를 배우고, 교차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다.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남북한 언어 및 문화 등이 지니고 있는 이질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평화교육을 구축하는 것은 이

런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⑧ 평화 교육은 조화 교육이다.

평화 교육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집단, 또 집단과 집단 사이의 분쟁만을 해결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여 평화를 찾는 교육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하는 환경 교육도 될 수 있다. 인간이 자연과 조화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교육은 자연 회복, 또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도 될 수 있다.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북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자연 생태계 및 환경을 조화롭게 유지시키기 위한 평화교육적인 원칙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⑨ 평화 교육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교육이다.

평화 교육은 인간이 과거와 현재에 어떠한 분쟁을 가지고 왔으며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였는가, 또는 해결을 보지 못함으로써 어떻게 하여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되었는가를 시간적으로 조명하게 하는 교육이다. 더 나아가서 평화 교육은 장래를 바라보면서 분쟁의 가능성을 가진 지역이라던가, 혹은 집단 또는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점을 추구하는데 주력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평화교육은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분단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었던 자신감, 남북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교육, 그리고 동아시아 정치경제의 중심점으로 나아가야 하는 미래 교육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⑩ 평화 교육은 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이다.

어느 사회든지, 그 사회의 구성원이 개인의 인권을 억압 또는 박탈하고서는 그 사회를 정의롭고 평등하게 할 수 없다. 또 정의롭지 못하고 평등을 등한시하는 사회는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 정의롭지 못하며 불평등한 사회는 사회계층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평화를 갖기 힘들다. 평화 교육은 사회의 인권 신장을 통하여 그 사회를 더욱 민주화시키며, 더 나아가서 복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화교육은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남북한 지역을 막론하고 자유 및 평등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교육 복지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실질적 통합단계 평화교육의 실천 사례

가. 평화와 평화 만들기 학습⁸⁾

(1) 평화와 평화 만들기 학습의 의미

(가) 평화의 개념

평화란 폭력 또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양식이라는 적극적인 접근과, 전쟁 또는 폭력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평화상태 또는 결과로 보는 소극적인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평화에 대한 소극적 관점은 분쟁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폭력 예방을 강조하는 반면, 갈등 또는 분쟁이 평화와 상호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소홀해 짐으로서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평화는 주어진 상태로서의 환경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나가는 민주사회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평화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 평화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느낌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분란, 갈등,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도, 어떤 확실한 영상보다는 고요, 만족과 같은 뜬구름 잡는 것들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화에 대한 이런 수동적인 이미지들 때문에, 사람들이 평화를 자신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구체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화관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여기서는 평화 방해자 (peace breaker)와 평화 추구자 (peace maker) 로 대표되는 두 관점을 살펴보겠다.

8)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Dedine, J. Richard & Crawford, K. Donna & Schrupf Fred. Creating the Peaceable School. Illinois: Champaign. Research Press, 1994; Kradler J. William., Teaching Concepts of Peace and Conflict. MA: Cambridge. Education for Social Responsibility, 1990.

평화 추구자들은 평화를 자기 자신을 비롯한 사회를 존중하는 행동으로 이해한다. 평화 추구자들은 그 자신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듣는다.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며,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에 평화 방해자들에게 정의는 잘해야 보상이고 잘못하면 보복의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해를 주는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개념에 정당하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공격적으로 대응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며, 사람들의 능력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평화 방해자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문제와 잘못된 자신과는 관계없고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나) 평화만들기 교육의 필요성

평화는 평화 추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행동양식이다. 평화만들기는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며, 각 개인사이에서 시작되어 사회 전체로 연결되어 각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 하는 것이다. 즉,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갈등, 편견, 증오, 부정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이다. 평화 만들기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무엇이 평화를 이루는지 이해하고 평화만들기의 행동양식을 알고 교실에서 제공되는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화만들기 행동양식을 배우고 익혀서, 더 크고 위협한 실제 삶에서도 스스로 적용해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

(2) 평화 만들기 교육의 원리

(가) 평화 만들기 행동에 대한 이해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평화는 매일, 매순간, 우리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 평화는 행동과 사고와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행동양식임을 알아야 한다. 표1에 나타나 있는 평화 추구자와 평화 방해자의 행동양식을 비교해보면 평화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평화만들기를 위해서는 갈등 해결 원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증오심과 폭력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를 때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II-2 > 평화추구자와 평화방해자의 행동양식 비교

	평화 추구자	평화 방해자
행동	위험을 무릅쓴다 확장한다 설득한다 대화한다 발명한다 돕는다	뒤로 물러난다 움츠린다 억지를 부린다 강요한다 있는 것만 본다 벌을 준다
사고	걱정한다 창조한다 상상한다 존중한다 반성한다	거절한다 주장한다 가로막는다 거부한다 비난한다
감정	아낀다 침착하다 격려한다 조화한다	증오한다 화를 낸다 겁준다 실망시킨다

(나) 평화 만들기 행동의 원칙

여기서는 Roger Fisher와 William Ury가 시작한 Negotiation Project에서 연구된 내용을 인용하였다. 이 장에서 여러 원칙들 중에서 어떻게 이러한 원칙들이 평화로운 학교에서 적용될 수 있을 지 제시하였다.

A. 문제와 사람을 구별하라

첫 번째 원칙은, 사람들의 강한 감정과 이질감, 대화의 어려움에 대한 것이다. 문제를 다룰 때, 사람들끼리 오해하고,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인간관계의 문제가 실제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배제해서 따로 취급해야 한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크게 '생각의 차이, 감정싸움, 대화의 부족'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실질적인 것들을 양보하거나 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B. 서로의 주장보다는 이해관계에 집중하라

두 번째 원칙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에 신경쓰지 말고, 사람들이 무엇을 정말로 원하는지, 곧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갈등 해결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감추어진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주장과 이해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해관계가 문제와 밀접히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장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해관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간의 주장을 절충하는 것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 주장을 절충하는 것보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절충시키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모든 이해관계 중에서는 몇 가지의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학생과 선생의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양쪽 모두, 학생들이 수업을

잘 이해하길 원하며, 학급이 협동적이기를 바라며, 상대방에게서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며, 학교가 재미있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항상 상충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공존할 수 있는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예로, 선생은 학급 내에서 서로 돕고, 경쟁이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할 수도 있지만, 학생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생은 소모임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각 개인의 기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할 수 있다. 선생은 각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과 함께 사귀면서 공동체의식을 키워주기를 바랄 수 있지만, 학생들은 한 두 명의 친구들과만 사귀고 싶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선생은 각각의 학급내 모임들이 어떻게 다른 모임과 다르며, 어떻게 하면 그 모임이 학급에 기여할 수 있는지 토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선생은 이렇게 얻은 각 모임의 장단점을 학급원들에게 알려서 서로 다른 모임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모든 갈등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이해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만이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모순되는 이해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의 주장뒤에 숨겨진 이해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기본적인 심리학적 욕구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소속감, 권력, 자유, 흥미가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서로 일치하거나 공존할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하여 몇 가지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친구를 갖고 싶어하며, 적을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소속감). 자기 자신의 존재와 하는 일을 인정받고 싶어하며(권력),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많기를 바란다(자유). 또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고, 괴로운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흥미). 공통되거나 공존할 수 있는 관심사를 찾게 되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고, 그 기반을 통해 갈등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다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 일시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진짜 이해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

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공통되거나 공존할 수 있는 관심사는 적절한 해결책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C. 서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라

세 번째 원칙은, 성급하게 해결방법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합의점에 도달하기 전에, 양쪽에서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하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 보아야 한다.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방해하는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성급한 판단, 둘째, 오직 한 개의 해결방안을 찾는 것, 셋째, 상대방이 이익을 얻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넷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등이다.

성급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판단이 상상력을 가로막아서 새로운 해결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한 개의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장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고만 노력하지, 가능한 해결방법을 넓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각 편이 자기의 관심사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은 일방적인 주장과 일방적인 해결책만을 만들어낸다.

D.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라

이 원칙은 어느 한 쪽의 제멋대로인 생각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어느 쪽도 상대방의 뜻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공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며, 의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합법적이며 실제적이다. 이론상으로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두 아이에게 케익을 나누어주는 다음의 이야기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한 아이가 케익을 자르고, 다른 아이가 먼저 케익을 고르게 되면, 어느 쪽도 불만이 없게 된다.

모든 문제에서 양편이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함께 찾아보고, 어떤 기준이 가장 적합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넓게 생각해야 한

다. 또한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그 기준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 쪽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쪽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정성을 서로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쪽이 생각하는 공정성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쪽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납득시켜야 하며, 다른 기준을 갖거나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시켜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기준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나. 갈등이해 학습⁹⁾

(1) 갈등이해 학습의 의미

(가) 갈등의 개념

갈등이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갈등은 원래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갈등이란 삶의 한 부분이다. 둘째로 갈등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 문화,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 셋째로, 갈등을 보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갈등에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9)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음, Dedine, J. Richard & Crawford, K. Donna & Schrupf Fred, *Creating the Peaceable School*. Illinois: Champaign. Research Press, 1994.; Girerd Kathryn & Koch J. Susan, *Conflict Resolution in the Schools*. National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Jossey-Bass, 1996.; Krادler J. William., *Teaching Concepts of Peace and Conflict*. MA: Cambridge, Education for Social Responsibility, 1990.

갈등에 대한 학습은 우리에게 우리문화의 가치, 필요, 이해뿐 만 아니라 다른 문화의 가치, 필요, 그리고 이해에 대해 배우는 풍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불행하게도 갈등에 대한 우리들 대부분의 시각은 두려움이나 염려로부터 시작된다.

갈등은 부조화 상태이다. 갈등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활동들이 (incompatible activities) 생겼을 때 존재한다 (Deutsch, 1973). Hocker 와 Wilmot (1991)은 더 나아가 갈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갈등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나, 희귀한 자원을 인지하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 집단으로부터 간섭을 인지하고 있는 적어도 두 개의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투쟁 (struggle) 이다.”

그런데 ‘양립할 수 없는’, ‘부조화’, 또는 ‘struggle’과 같이 갈등을 설명하는 단어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갈등이 부정적인 의미로 간주되기 쉽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의미는 주로 경험을 반영하고 갈등이 마치 피해야 만 될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적인 관계들은 감정적인 경우가 빈번하다. 그래서 갈등은 분노, 미움, 배신, 또는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갈등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잠재적이며 긍정적인 발현으로, 인간에게 있어 유기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갈등에 대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심각한 문제들은 빈번히 갈등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등에 대응하는 데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생산적인 갈등해소를 향한 첫 발걸음이다.

(2) 갈등에 대한 접근 원리

갈등을 확연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갈등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 생각, 반응, 그리고 행동은 신념, 가정,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경험에서 기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통찰력과 관점을 가지고 갈등을 보고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등을 두려움과 근심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풀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갈등해소 분야는 갈등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

한다. 이 시각을 통해서 오래된 신념, 사고, 습관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들은 보다 넓은 시야를 얻는데 도움을 준다. 갈등을 보는 기본적인 접근방법에는 기원 (origins), 근원(sources), 형태 (types), 신념 (beliefs), 입장 (stance)이 있다.

(가) 기원(Origins)

갈등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에 중점을 둔다. 갈등의 기원에 따라 한 개인 안에서 발생한 경우 (intrapersonal), 두 사람 또는 더 많은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경우 (Interpersonal), 한 집단 안에서 집단원들 사이에 일어난 경우 (Intragroup), 둘 또는 둘 이상의 집단간이나 조직간, 기구간, 또는 국가간에 발생한 경우 (Intergroup)로 나누어진다. 또는 갈등은 이들 범주를 넘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들과 한 기구 사이). 갈등은 intrapersonal 과 interpersonal 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 즉, 갈등은 한 문화안에서도 발생 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도 생길 수 있다.

(나) 근원(Sources)

갈등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를 이해한다. 이 방법의 목적은 그 갈등에 적합한 폭넓은 범주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원은 갈등의 초점이다. 이 범주내에서 우리는 희귀성, 통제, 사용권, 소유, 영역, 공간, 그리고 시간이라는 세분화된 범주들을 파악할 수 있다. 갈등은 다음과 같은 범주, 즉 관계, 가치, 자료, 이해, 또는 구조를 두고 존재한다. (Moore, 1986).

(다) 신념(Beliefs)

갈등해소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믿음 또는 신념을 말한다. 문화는 분쟁자들이 갈등을 보는 관점과 갈등해소에 있어서 그들의 일반적인 목표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다. 명예, 수치, 충성심, 개인사, 권위, 그리고 순종과 같은 문화적 개념은 각 집단이 만족하는 결과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여파를 가진다. 한문화에서 갈등해소의 요인들이 다른 문화의 그것과 같지는 않다. 그래서 갈등집단들의 문화와 갈등이 발생한 문화양상이 모두 갈등해소의 과정과 방법에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학교, 조직, 그리고 집단들 모두 자신들의 문화를 개발한다. 각자는 각자의 구성원들에게 갈등에 대한 시각을 개발시키고 의사소통을 한다. 조직 또는 집단 문화는 그 집단이 갈등에 처해 있을 때 또는 그룹 내에서 회원들 상호 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아주 중요한 해소 원인이 된다. 예를 들면, 학교문화에서 갈등 해소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갈등 해소의 시각은 학교 공동체의 기본 문화, 또래 문화 또는 가족 문화와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학교와 갈등이 있거나 학교내에서 갈등이 있을 때 학교문화는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교육자들은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행동, 옷차림, 머리모양, 언어, 또는 음악에 의해서도 청소년 문화는 자신만의 태도와 믿음을 갈등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라) 태도(Stance)

분쟁자들의 태도에는 분쟁자들의 주장, 이해관계, 그리고 필요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a. 주장

주장은 분쟁 당사자들에 의해 취해지는 가장 일반적인 초기 태도를 대표한다. 주장은 당사자들이 각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한다. positional 태도가 지닌 문제는 그 position들이 도전되거나 반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position은 구체적이고 굳건한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갈등해소의 생각은 제한된다. position은 문제해결이나 탐험을 하려는 여유는 거의 없다. 대표적인 분

쟁의 초기 태도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타협한다”.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등으로 나타난다. 갈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 분쟁자들이 주장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 짓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b. Interest (이해관계)는 주장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대변한다.

c. Needs (필요)

필요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 보다 폭넓은 범위다. 충족되지 못한 심리적 또는 신체적 필요들에는 기본적으로 갈등이 내재하고 있다. 비록 그런 필요가 표현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에 대한 만족은 갈등해소의 궁극적인 것이다. 그룹에 있어서 심리적인 필요에는 정체성, 안전, 활력, 그리고 공동체이다. 사실 이들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다. 심리적 필요는 다른 요인들처럼 문화적인 contexts 내에서 존재한다. 각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문화적 기대와 관습을 보는 것은 그들의 position, interest, 그리고 needs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익하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나타난 position, interest, or need를 해석하는데 본질적인 것이다.

갈등은 어디나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갈등 연구에서 두 살 정도의 아이들도 어른들이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갈등의 양상을 보여준다. 아이들도 needs, interest, and positions을 지니고 있다.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그들은 단순히 행동하는 존재에는 그들의 interests를 파악할 수 있는 데로 옮겨진다.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발달 과제는 문제해결 기술과 사회적 협동을 배우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접하는 갈등을 알고 대응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배우는데 가정 및 학교로부터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갈등해소 기술은 걸음마를 하는 아이들과 유치원생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생들의 성장 발달과정과 적합하도록 교과목 내에 맞아야 한다.

다. 갈등해소 학습¹⁰⁾

(1) 갈등해소 학습의 의미

(가) 개념

갈등해소의 개념과 갈등해소 기술을 배우는 목적은 학생들이 다음사항을 학습하게 하려는 것이다.

a. 갈등해소와 관련된 가치 (values), 신념 (beliefs), 그리고 태도 (attitudes)을 밝힌다.

b. 학생들의 갈등해소에 대한 경향을 시험하고 갈등해소 실습자로서 그 효과가 향상될 수 있는 태도들과 믿음 또는 신념들을 파악한다.

c. 갈등해소 과정을 진전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들을 밝히고 향상시킨다.

d. 갈등해소 과정을 진전시킬 수 있는 사고 기술을 밝히고 향상시킨다.

(2) 갈등해소 교육의 원리

(가) 자가진단 (Self-Assessment)

한 사람의 갈등행동을 점검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신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 갈등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

10)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음. Creative conflict resolution: More than 2000 activities for keeping peace in the classroom K-6 by William J. Kreidler; Jim Halligan(Community Board Program, Inc.) and Peterzell (Wilson High School, San Francisco Unified School District), 1989; Girerd Kathryn & Koch J. Susan, Conflict Resolution in the Schools. National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1996.; Jossey-Bass; Peer mediation conflict resolution in schools (Program Guide, p.55) by F. Schrupf, D. Crawford, and H.C. Usadel, Champaign, IL: Research Press, 1991.

리고 유기적으로 오는 것이다. 둘째, 갈등행동에 대한 통제나 선택이 많아질 수록 개인은 각 갈등상황에 있어 갈등행동과 그것에의 접근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단지 몇 가지만을 선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주어진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행동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갈등은 생산적이고 이로울 수 있다. 발생한 문제들은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소되었을 때 해결될 수 있다. 의사소통은 갈등이 효과적인 갈등해소 과정에 있거나 해소되었을 때 향상된다. 우리는 갈등이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자의식을 갖고 반성적인 참여자들이 되어야 한다.

갈등 행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도구는 다양하다. 대부분 두 개 이상의 갈등행동의 측면들을 탐구하고 갈등에 대한 반응의 또 다른 예를 제시한다. 자가 진단이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점검과 갈등에 대해 좀더 배우고자 하는 자극이 될 수 있는 사실들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 원리, 가치, 믿음, 자가진단 (Self-Assessment Attitudes)

갈등행동의 원인과 해소 과정에는 가치관, 신념, 그리고 태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Morton Deutsch (1991)는 in *Educating for a Peaceful World* 건설적인 관계를 양성하는 가치, 태도, 그리고 지식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평화적인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동적인 학습 태도,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자유스러운 토론분위기, 그리고 교사중재노력 등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Corollaries는 폭력이나 폭력에 상응하는 것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식,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자기종족 중심주의에의 탈피와 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 이해관계는 상호의 문제로서 받아들이고 서로 협력하여 풀어야 한다는 시각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가족, 공동체, 종족집단, 또는 국가 안에서나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갈등들을 건설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여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태도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William Kreidler (1984)는 아이들은 인간관계의 학습과정에서 갈등을 건설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은 교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뿐 만 아니라, 교사는 폭력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건설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실제적인 정보와 상황이나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Coleman McCarthy는 학교에서의 갈등해소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비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공부하는 것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서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들이 가정이나 친구관계 또는 국가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나 갈등은 폭력을 통해서이거나 또는 비폭력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외에 다른 표현방법은 없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비폭력의 힘을 믿는다. 정의의 힘, 사랑의 힘, 부를 공유하는 힘, 새로운 생각의 힘, 그리고 부패한 권력에 대항한 조직된 저항의 힘을 믿는다.” 그는 학생들이 이러한 방법을 학교에서 학습하지 않는다면 협상이나 타협 또는 다른 비폭력적인 수단들로 갈등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인다.

학교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은 반드시 학교의 모든 구성원 뿐 만 아니라 학교문화와 분위기,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갈등해소와 관련된 가치나 신념, 그리고 태도를 개발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교실환경적 방법이나 과목들에 있어 중요한 motivation에 대해 고찰하고 갈등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지향점과 태도를 시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가치, 신념, 그리고 태도에 대해 사고할 만하고 동료들과의 토론에 참가될 만한 질문들이다.

- a. 갈등해소 교육에 관여할 때 개인적으로 가치나 신념, 그리고 태도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 b. 만일 그렇다면 그런 가치, 신념, 태도들은 무엇인가?
- c. 갈등해소 교사의 효과를 더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태도 신념, 행동들

이 있는가?

d. 갈등해소 실습자로서 교실상황 외부의 특정한 가치나 신념 그리고 태도들에 기준하는 것이 필수적인가?

e. 만일 있다면 어느 정도에서 갈등해소 실습자들이 social causes 에 대해 활동가가 되어야 하는가?

라. 중재 학습¹¹⁾

(1) 중재학습의 의미

중재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은 제 삼자, 즉 중재자가 분쟁 당사자들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을 말한다. 교사나 교장, 혹은 학생들간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라면 누구라도 중재자가 될 수 있으며, 같은 학생이라도 중재자가 될 수 있다. 학생이 중재자가 되면, 어른들의 책임감을 덜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어른들의 개입 없이 학생들 스스로 대화하고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측이 중재 과정에 들어가겠다고 동의한 상태라면,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려는 상황이라면, 학생 중재자가 큰 도움이 된다. 학생들 스스로에 의한 중재에는 두 분쟁 당사자간의 교섭과, 양측의 요구를 종합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즉, 서로에게 강요하지 않고 다른 점을 조화시키는 방법이다. 학생들에 의한 중재가 학교에서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어른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11)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음. Dedine, J. Richard & Crawford, K. Donna & Schrupf Fred, Creating the Peaceable School. Illinois: Champaign. Research Press, 1994.

(2) 중재교육의 원리

중재교육은 중재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중재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은, 당사자들 서로간의 문제 해결을 돕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있다. 미리 준비한 단계별 과정을 따라, 몇 개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조율한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재자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앉은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앉는다. 가장 중요한 중재자의 역할은, 두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며, 해결방법을 만드는 것은 해결 당사자들의 책임이다. 서로 신뢰감을 쌓고, 협력할 수 있도록 중재자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 중재자의 역할

A. 중재자는 공정해야 한다.

중재자는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중재 과정에서 양측을 조정하지만, 직접 문제 해결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B. 중재자는 공감하면서 들어야 한다.

가끔씩, 문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서로의 감정이 격하게 흐르고 근거 없는 추측이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고, 과거의 일들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럴 때는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이 중재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상태를 인정하며, 서로 느끼는 점들을 명확하게 밝히게 되며, 서로 이해하며 일할 수 있게 한다.

C. 중재자는 사람들을 존중한다.

중재자는 양측을 공정하고 편견없이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상태와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존중의 실마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D. 중재자는 믿음직해야 한다.

학생들이 과정을 믿고 따라오려면, 우선 중재자가 비밀을 지킬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자기만의 해결책을 양측에 강요하는 사람도 바람직하지 않다.

E. 중재자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도록 돕는다.

중재자는 과정을 책임질 뿐이지, 문제 해결방법까지 만들어서는 안된다.

(나) 중재과정

중재과정은 다음과 같은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 중재에 동의한다.

좋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작이 중요하다. 중재자는 양측을 따뜻하게 맞이한 후에, 다음과 같은 중재에 필요한 기본 규칙을 알려주어야 한다.

▷ 중재자는 편을 들지 않는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다.

각 분쟁 당사자들이 이런 기본 규칙을 따르고 지킬 수 있는지 물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합의점을 찾을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중재자의 역할은 양측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임을 강조할 수 있다. 중재자는 때때로 기본 규칙을 다시 일러줌으로써, 양측이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였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서 한 쪽이라도 협력하고 싶어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중재는 일어날 수 없다. 협력한다고 해서 언제나 해결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협력 없이 해결방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2단계 : 여러 가지 관점을 종합한다.

이 단계의 목적은 문제나, 상황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관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중재자는 각각의 당사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등의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종합한다. 만일, 어느 한 쪽에서 중재를 부탁했다면, 그 사람부터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중재자는 그 사람의 관점을 정리하여,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가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재자는 그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의 관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재자는 다시 몇 개의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마찬가지로 다른 당사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몇 개의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이해수준을 확인해 본다. 이렇게 번갈아 물어보고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3단계 : 이해관계를 살핀다.

이 단계에서는 중재자가 당사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한데, 종종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에 너무나도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 중재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의 이면을 보도록 질문을 던진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원하는 것’의 내용이 주장이며, 그 이유가 이해관계이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당사자들은 그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서로 공유하고 있거나, 혹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공존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된, 혹은 공존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양쪽으로 하여금 이러한 공통점에 근거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

4단계 :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 방법을 만든다.

해결방안을 만드는 데에는 서로 깊이 아이디어를 짜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단계는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각자가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개 한 개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른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 아이디어를 평가하다보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눌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이 평가하는 과정과 합의의 도출하는 과정에서 분리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한다. 그 대신 다음 과정에서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많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다. 훌륭한 합의는 양쪽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고, 갈등 관계에 있는 문제

를 공정하게 해결하며 오래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에 더욱 찾기가 쉽다.

5단계 : 해결 방법을 평가한다.

이 단계에서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나왔던 해결 방법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그 방법들의 전체나 일부를 짜 맞추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당사자들의 평가 과정을 도울 수 있다. “이 방법이 공정한가요?”, “실천할 수 있을까요?”, 또는 “잘 될 것 같나요?”.

6단계 : 동의한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양쪽으로 하여금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짜도록 해야 한다. 이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지에 관한 내용이 다 있어야 한다. 이제 중재자는 각 사람들에게 그 계획을 요약해서 말해보도록 하며, 혹시 당사자가 그 계획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____을 하겠다고 한 것이 맞죠?” 양쪽에서 합의한 내용을 서로 이야기 한 후에, 중재자는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는지 물어본다. 각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중재자는 각 사람과 악수하고 중재 과정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는 양쪽이 서로 악수하도록 권한다.

Ⅲ. 실질적 통합단계의 평화교육체제

1. 평화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 시나리오

가. 상황의 설정

여기에서는 남북 연합을 기점으로 하여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민족적 공동유대의식을 갖추고 있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하나로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미 본 연구팀은 2001년도 과제였던 평화공존 상황의 교육공동체 구성 방안에서도 미래를 예측하는 전략적 연구기법으로서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평화공존 상황을 포함하는 남북연합 시기에서 남북한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적 과제 등이 무엇인가를 탐색한 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실질적 통합 단계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평화공존 상황으로서의 교육공동체, 즉 ‘평화교육체제’를 통하여 새로운 통합 교육이념으로 ‘평화’를 홍익인간과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시나리오 기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하는 데에 따르는 상황 설정의 난점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 또는 ‘남북연합 이후 실질적 통합 단계를 거친 통일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상징하는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연합’ 또는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 관한 연구진의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현재의 상황을 남북한 상호간의 화해 협력으로 나아가는 시점으로 보고,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할 상황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분단(화해 협력) → 평화공존 → (남북연합) → 실질적 통합(통일)]

이 단계 중에서 [(화해협력) → 평화공존 → (남북연합)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요구되는 교육 통합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함으로써 남북한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제 조건과 과제를 확인하고자 하고자 한다.

위의 도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화해협력) → 평화공존 → (국가연합)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교육통합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적 통합이나 일방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도 상황에 따른 일방적 통합을 제외하고는 상호 작용을 통한 통합 체제, 즉 상호 작용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남북연합에서 출발하는 평화 공존 상황에서 남북한이 동등한 위치에서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의 호환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핵심적 개념은 ‘민족공동체’, ‘상호작용’, ‘호환가능성’, ‘적대요소의 완전 해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호환가능성은 이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시나리오 기법에서 확실성의 요인을 확정하고, 불확실성의 요인을 비교하는 데에 있어서 채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나. 시나리오 기법

이 연구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를 예측하는 전략적 연구기법 중의 하나이다. 전략적 연구기법은 2001년도 연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시나리오 기법뿐만 아니라 ‘경향외삽법’, ‘델파이기법’, ‘형태학적 분석법’, ‘미래동향조망기법’, ‘조사분석기법’ 등이 있다.

‘시나리오’는 ‘인과관계와 의사결정상황에 초점을 두고 구성된 일련의 가상 사건’이다. 그리고 시나리오 기법은 “시나리오를 다양한 이슈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여러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구조화된 방법”이다. 따라서 시나리오 기법은 의사결정을 위한 목적에서 사전에 결

정된 환경과 불확실한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그럴듯한 미래상황을 제공하거나 혹은 일련의 사건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구축하고자 하는 남북한 교육공동체 구성은 일종의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를테면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교육 통합 방안의 하나로 민족교육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설정하고 이를 검토함으로써 통일 사회의 교육개혁 과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정책입안자 또는 정책결정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거나 간주하였던 요소를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 그에 대한 모종의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 기법은 조작적 특성을 요구한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시나리오 기법을 통하여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제한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조작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래상황의 다양성을 인지한다. → ② 미래상황의 제한성을 확인한다. → ③ 환경 요인을 고려한다(즉 환경 요인을 범주화한다). → ④ 동기를 유발하는 이야기를 개발하고 소개한다(흥미 유발을 위한 동기유인체제를 개발하여 시나리오의 특성상 미래 상황 전개에 대한 흥미를 유도한다) → ⑤ 흥미 유도를 위한 창의성을 활용한다. → ⑥ 확실성을 고려한다(예측 가능하면서 불변의 변인을 확정하는 일을 지칭한다). → ⑦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발생 가능한 불확실한 요소를 예측 가능한 형태로 가정한다). → ⑧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나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위의 과정 중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⑧번이다. 즉 ⑧번의 조작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확실성을 공통부분으로 두고 불확실성의 요인을 비교·분석하면서 구성한다(<표 III-2>를 참조할 것).

다.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의 시나리오 설정

여기서는 남북한이 어떠한 통합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교육체제 통합

의 형태를 어떠한가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존의 남북한 통합에 관한 연구가 남쪽 중심의 흡수통합을 전제로 했다는 데에 있다. 체제통합에 따른 교육체제통합의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교육체제 통합형태

(체제) 통합방법	교육체제 통합형태
일방적 통합	남우위적 교육통합
	북우위적 교육통합*
상호협약적 통합	상호보완적 교육통합
	제3의 형태 교육통합

위의 표에서 북 우위적 교육통합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교육통합에다 북한 교육적 요소가 일부 가미된 다른 형태의 통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표가 시사하는 바는 체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선택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실질적 통합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시나리오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육 공동체의 형성이나 교육통합의 방향 제시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거의 없다. 물론 교육통합의 방향이나 남북간의 교육공동체의 성격이 위와 같은 남북 체제의 성격이나 남북관계에 따라 종속적이고 유동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상황에 관한 비교적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북 관계에서 ‘평화교육’(peace education)은 남북연합 이후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상호 적대요소를 완전하게 해소하는 평화로운 상태를 조성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궈어지는 평화교육이란 국가간의 또는 분쟁지역에서의 전쟁예방과 전쟁 발발방지를 염두에 둔 것이 라면, 남북관계에서 평화교육은 단일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공동체를 완전 구축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남북 연합 이후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구현될 수 있는 평화교육의 필요조건이다.

그렇지만, 평화교육이 남북 지역간 적대 감정을 완전하게 해소한다는 일면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교육은 그 본래적 목적이 평화의 정착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교육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평화교육과 교육통합이라는 두 가지 가능한 변인을 놓고 각각의 적극성 여부를 ⊕와 ⊖로 나누어 볼 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2> 교육통합과 평화교육

	교육통합 ⊕	교육통합 ⊖
평화교육 ⊕	1단계: 지역간 적대 해소 2단계: 교육제도의 통합 3단계: 교육내용의 통합	일시적, 전략적 분단 상황: 적극적인 통일노력의 결여
평화교육 ⊖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통일을 전제로 한 교육공동체의 구성	남북 지역간 격차 조성 및 특정 지역 중심 통일 사회 구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 연구의 시나리오는 적극적인 평화교육(평화교육⊕)과 적극적인 교육통합 노력(교육통합⊕)을 전제로 하여 적어도 세 가지 단계의 통합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즉 시나리오의 기법 상으로 보면, 적극적인 평화교육과 적극적인 교육통합이 확실성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확실성으로 놓고, 이 조건 아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를 추출해 내는 것이다.

(1단계: 적극적인 평화교육) 평화교육을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남북연합 이후 남북한 지역간의 실질적 통합에 따른 적대감정 해소 등 상호이해를 강조한다. 이해 없는 다음 단계의 통합이란 불가능하므로 남북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신장시키는 데에 주력한다.

(2단계: 교육제도의 통합) 다음 단계로서 교육제도의 통합을 모색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교육제도라는 것은 학제, 자격제, 교원양성체제, 교육행정조직 등의 일체의 교육운영체제를 의미한다.

(3단계: 교육내용의 통합) 여기서 교육내용이라 함은 교육 과정학에서 언급되는 교육내용이 아니라 교육을 구성하는 내용을 일컫는다. 남북한의 실제 교육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교육용어, 남북한이 각기 지향하는 교육목표(수업목표와 같은 미시적 차원의 교육목표), 교육평가체제, 교과목의 수, 교과목의 통합 가능성, 교육설명(교육이론) 체제 등을 완전하게 통합한다.

위의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연구함에 있어서 통합의 의미가 가져다주는 혼선을 피하고 ‘통합’의 핵심을 이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시나리오 기법의 핵심인 ‘호환성’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위의 표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즉 2단계와 3단계의 통합에서 시나리오를 통하여 남북한 체제에서 사용되는 교육제도와 교육인프라, 자격제도 등과 같은 내용의 호환체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III-3> 교육통합의 단계

	교육통합 ⊕	교육통합 ⊖
평화교육 ⊕	<p>1단계: 적극적인 평화교육을 통한 적대 해소</p> <p>2단계: 교육제도의 호환성 - 합의를 통한 완전 통합</p> <p>3단계: 교육과정의 호환성 - 합의를 통한 완전 통합</p>	<p>일시적, 전략적 차원에서 특정 지역의 강제적 통합: 적극적인 통합노력의 결여</p>
평화교육 ⊖	<p>적극적이고 급진적인 통일을 전제로 한 교육공동체의 구성</p>	<p>점령 정책 등 인위적인 교육개혁 정책</p>

위의 단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이다. 첫째, ‘평화교육’ 단계 중에서 **평화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평화교육의 구체적인 단계를 설정하는 일을 포함하여 평화교육의 목적 등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평화교육의 내용을 선정하는 일이다.

둘째, **교육제도의 호환성**으로서,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완전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체제나 제도를 상호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통합 노력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자 한다면, 교육제도, 교육이념, 교육과정 등은 남북한 당국의 핵심적 당사자가 완전하게 합의하여 통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상호 통합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 교육재정의 통합 및 보완 절차 확인
- * 교육과정의 완전한 통합 및 보완 절차 확인
- * 중앙교육행정 및 지방교육행정의 통합 확인
- * 표준 학제를 통한 완전 통합 확인
- * 직업, 자격, 능력 인증 등의 완전 통합 확인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남북한 교육공동체의 실질적인 통합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III-4> 교육통합의 경우 고려해야 할 항목

교육제도의 호환성	교육과정의 호환성
인력; 행정조직; 재정확보; 교과서 개발 체제; 교원양성, 교원급여 및 운영체제; 교원교류; 교원직급 및 승진 체제; 입학시험 체제; 교육기관의 유형;	(적대적 요소까지 완전하게 해소한 교육적 요인) 교과목의 설치; 교과목의 수; 교과목의 통합; 교육용어, 교육목표진술; 수업진행방식; 교육평가체제; 학생자치활동 조직;

위의 호환성을 인정한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시나리오 기법 상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구분하고 확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확실성과 불확실성 변인의 확정되면 이 작업이 즉 ‘해결해야 할 주요 이슈’를 결정하는 일이 된다.

① 확실성 : 변동 요인이 별로 없는 요인 중에서 시나리오 작성에 중요한(결정적인) 요인만을 상정한다.

② 불확실성 : 다양성, 제한성(범주화), 동기유발, 창의성에 기초하여 불확실한 요인을 상정한다.

연구의 진행상, ‘남북 교육공동체 구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불

확실성'의 변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교육적 상황에서 “적대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육적 변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의 교육통합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교육 전개 과정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로서 가장 먼저, 시나리오 기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교육적) 문제가 각 영역별로 무엇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의 세 가지 단계별로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적극적인 평화교육**)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남북한간의 교육이념의 차이를 완전하게 해소해야 한다. 교육행정(지원)체제와 학제를 상호 비교하여 통합하고, 교원의 양성과 수급, 자격제도 등을 검토·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 적극적인 평화교육이 요구되는 이유는 남북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남북간에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상호 이해와 같은 인지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지만 평화교육의 의도가 이와 같은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닌 만큼, 평화교육의 목적과 범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평화교육의 요소를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도록 한다.

평화교육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면 ‘평화교육’의 개념이 어떤가를 일차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중에서 ‘평화’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화’는 ‘전쟁을 포함하여 일체의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가 전쟁이지만, 전쟁이 없다고 평화롭거나 평화로운 상태가 보장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폭력’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폭력은 사람이나 재물에 물리적 피해를 가하는 공격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폭력은 제도화된 것으로부터 일탈된 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폭력은 지배 세력이 그들의 권력이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연중에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것이 ‘위로부터의 폭력’이다. 이

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지배계층이 사용하는 폭력이나 저항을 ‘아래로부터의 폭력’이라고 한다. 아래로부터의 폭력 또는 피지배계층의 폭력은 그 양상이 쉽게 드러나고, 직접적이며 작고, 국지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위로부터의 폭력은 간접적이며 지속적이고,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드러나더라도 그들 스스로에 의해 합리화되고 묵인되기 때문에 ‘합법적 폭력’이라 한다.

내용 면에 있어서는 폭력은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구조적 폭력’이란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과 같이 법이나 제도 등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가리킨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문화적 폭력’이란 물리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문화적 측면을 이용한 폭력이다. 이를테면, 직접적 폭력 행위나 구조적 폭력의 실체를 정당화하거나 최소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간주하기 위하여 종교와 사상, 학문, 언어나 예술 등을 사용하는 폭력이다.

폭력의 적극성 면에서 보면, 평화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또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또는 물리적 폭력은 물론이거니와 간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 및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를 우리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에 적용하면, 전자는 ‘국가안보’ 또는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동원되는 평화의 개념이며, 후자는 사회의 번영과 개인의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평화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서 ‘적극적인 평화교육’이라고 한 것은 바로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남북연합 이후 남북한이 실질적인 통합 단계에 들어서면서 완전한 통일 사회를 구현하여 평화 정착의 단계로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북한 체제 그 자체의 통합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적대적인 의식과 제도를 완전하게 해소하여 국가적인 번영과 각 개인의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평화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목

표로서의 평화'와 '수단(과정)으로서의 평화'가 그것이다.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목표로서의 평화'는 중시되어 왔고 또한 널리 인식되어 왔다. 즉 '수단으로서의 평화'는 무시되어 왔다. 이를테면 중동지역에서의 평화를 위하여 국지전을 허용하고 용인하는 것은 '목표로서의 평화'만을 중시하고 '과정으로서의 평화'는 무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단으로서의 평화' 또는 '과정으로서의 평화'는 '평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 수단으로 성취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단(과정)으로서 평화'를 달리 설명하자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폭력을 용인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뜻이다. 폭력이 일시적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폭력으로 평화를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적극적인 평화교육'을 '수단으로서 평화'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평화교육이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여 실질적 통합 단계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있어서 일체의 폭력이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구안한 '적극적인 평화교육'의 요소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를 위하여 우선 이제까지 살펴본 '평화'의 개념적 열개를 통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표 III-5> 평화의 개념적 열개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목표로서의 평화	(냉전시대의 국지전 합리화 논리) (분단상황에서 고착 논리)	(강대국 이익을 위한 타국에서의 국지전 합리화 논리)
수단으로서의 평화	-	실질적 통합과 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위의 표를 중심으로 하여, 평화교육의 요소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6> 평화의 개념과 평화교육의 양태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목표로서의 평화	냉전시대의 반공교육 내용	-
수단으로서의 평화	-	(평화공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인간의 존엄에 대한 내용 타인에 대한 배려 폭력의 폐해에 관한 실증적 사례 폭력예방에 위한 노력 적극적 평화의 필요성과 남북통일 남북 이질감 극복을 위한 내용

(2단계: 교육제도의 호환성) 1단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제도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작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이슈’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교육체제, 학교제도, 교원의 지위 및 처우, 교육행정 체제, 교육지원체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지역간의 그간 교육결과에 따른 상호 배타성을 완전 극복하기 위한 조건에서 불확실성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한 호환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때, 불확실성 축의 결정에 나타나는 난점을 고려한다. 즉 전반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문제(정치적 변인, 시간상의 시점의 결정 등)를 고려한다. 또한 교육문제 중에서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둘 것인가 문제의 결정하여 시나리오 작성이 방만해지는 것을 막는다.

(3단계: 교육과정의 호환성) 우선 남북한의 실제 교육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교육용어의 통합인 경우, ① 서울 표준어를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교재와 경비의 공급을 남측에서 부담함, ② 북한어를 중심으로 통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교재와 경비의 공급을 북측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남측이 부담할 것인지, ③ 교육이론을 일차적 준거로 하여 통합하는 방식 등이 있다. 그러나 ③의 경우, 교육체제가 남북한 공히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하위변인으로 교육이론에서 사용되는 언어 차이를 불확실성으로 잡는다.

남북한이 각기 지향하는 교육목표(수업목표와 같은 미시적 차원의 교육 목표)의 경우, ① 남한식의 수업방식에 따른 목표진술의 채택할 경우 무엇을 준거로 하여 진술할 것인지, ② 북한식의 생산지향적 목표진술 방식의 채택할 경우 북한의 생산지향적인 목표 방식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③ 남북한 방식의 혼합 또는 제3의 방식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한다.

교육평가체제의 경우도 교육목표의 경우를 준용한다.

나. 남북한 실질 통합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이제까지 시나리오 기법을 설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단계별 교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단계 중에서 2-3단계의 내용 중에서 본 연구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문에 포함된 내용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남북한이 상호 체제와 이념을 통합하는 가운데 상호 적대적 내용과 요소를 완전 해소해 가는 관계를 형성해 갈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 분야에서도 남북한은 공통의 관심과 이해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통합 측면의 민족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 교육 상황에서의 완전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교육제도, 교육과정, 교육행정의 세 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하부 영역에서 상호 호환 가능한 변인을 확정적 변인으로 하고 이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불확정적인 변인으로 하여 시나리오 상황을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제도 분야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분야는 법령의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상호간에 비교적 쉽게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법령의 개정을 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남북한 상호 학력 인정, 대학입학자격의 호환, 남북한 교원의 학술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서 의무교육제도의 통합이 있는데, 이는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가장 큰 교육적 과제라는 점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남북한 상호 학력 인정의 핵심은 남북한간의 학제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에 있다. 남한의 6-3-3-4제와 북한의 4-6-4제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어느 수준에서 상호 인정을 할 것인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상호 이질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북한의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남한의 초등학교 5학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초·중등학교 과정에서 모자라는 북한의 2년이 문제의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입학 자격의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학제상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문제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러나 대학 입학 을 위하여 북한의 10년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 남한의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확정성으로 하였을 경우, 야기되는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가 심각할 경우, 남한의 대학에 조건부로 입학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남한의 대학에 입학 을 허용하되, 과거의 예과(豫科)처럼 1~2년간의 기본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외는 반대로 남한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북한의 대학에 이수할 경우, 몇몇 이수과목 면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교원제도 통합의 경우, 초등교사, 중등교사, 대학교수들의 기존 법적 체제 정비를 통해 이에 대한 확정적인 요인을 토대로 야기되는 문제 점을 예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분야로서 교육과정의 영역은, 교육제도의 영역보다 훨씬 통합이 어려운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가장 적대적이었던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용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교재의 완전통합, 이수 학점의 인정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교재의 완전 통합과 통합교과의 개발은 남북한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어와 역사 교과서 교재의 개발을 확정적인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두 교과에 남북한 어느 한 쪽의 이념적인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는 이를 배제하고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 학생의 이수 학점 또는 성적의 인정은 무엇보다도 교육내용, 즉 교과서가 다르며, 교육과정 상의 이수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고려해야 한

다. 학점이나 이수 성적의 상호 인정을 피하고자 한다면, 남북한의 학점이나 성적 이수 체제를 먼저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이후 호환 가능한 요소를 확정적인 변인으로 잡고, 불확정적인 요인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끝으로, 교육행정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정치적 결단 등과 같은 비교육적인 요인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분야이면서도 그 가시적인 성과를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남북한 정부차원의 교육협력기구의 구성 문제, 북한의 교육재정 지원 문제, 기타 남북한 교육협력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정부 차원의 교육협력 기구의 구성은 중앙정부차원과 지방정부차원의 교육기구를 완전 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방정부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지방자치 단위를 지칭한다. 여기서 확정적인 요인은 각기 차원에서 누가 기구의 구성원이 되는가의 문제, 어떤 교육과제와 사업이 이 기구의 기능이 되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불확정적인 요인을 추출·고려하면 시나리오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

북한의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 문제는 북한이 표방하는 무상의무교육이 명실공히 무상의무교육이 되려고 한다면, 재정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를 확정적인 변인으로 잡아야 한다. 특히 남한이 현재 9년제 무상의무교육을 완벽하게 실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상호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확정적 변인을 설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교육통합 사업은 다양한 경로와 분야를 통하여 마련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남북한이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시나리오 상황에서 확정적인 변인을 설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여기서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IV. 실질적 통합 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1. 교육제도 통합 방안

가. 통합의 기본 전제와 방향

(1) 기본 전제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 단계에서 교육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평화적인 통일 방법을 활용하여 남북연합 체제 속에서 확장시켜 왔던 평화교육의 원칙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 방식 중에서 평화통일 원칙의 평화교육 구축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질적인 남북간 교육제도를 완전하게 해소하고 향후 남북 통합체제의 지향점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화교육체제의 정착을 통해서 남북교육제도의 통합은 남북한 당국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민족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교육공동체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상호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기능적, 점진적인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남북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원하는 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실질적인 통합방안 원칙에 따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남북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효율적인 통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교류·협력을 사회 문화 공동체 형성 차원으로 전략 부문을 승화시키는 방식으로 실질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는 공식적으로 통일교육법을 남북한 모든 지역에 확대·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개정하고, 교육제도의 개편·통합을 위한 경과 조치를 준비하도록 한다. 이러한 준비 과정 속에서 곧바로 남북한 교육제도를 통

합시킴으로써 완전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남북연합을 정착시키는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남북연합이 정착된다는 전제 아래 남북교육제도 등의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 단계를 어느 정도의 기간 속에서 성취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통일 시기를 추정한 조사나 연구를 볼 때 일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10년 혹은 그 이상의 많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 방식을 준용하는 것은 지금부터 남북연합을 거쳐 실질적인 통합 과정의 변화 상황도 감안하여 통합 방안을 탐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2) 기본 방향

남북연합 이후 실질적인 교육제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근 북한의 변화 동향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전제로 해야 한다. 북한의 최근 정세 변화는 주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통합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실질적인 통합 단계는 북한이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체제 인프라를 전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통일 사회의 새로운 교육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민족주의 및 민주주의 교육 이념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교육제도는 남북의 이질성을 해소하는 한편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내적인 통합을 이룩하고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민족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구조화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교육제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조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의 바탕 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정책이 지향하는 이념과 부합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교육제도도 인간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존엄한 인격체로 확립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제도는 개성을 중시하고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고 가치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 통합 단계의 새로운 교육제도는 남북연합 이후 상호 보완·개선되고 있는 표준형 교육제도를 비타협적 요소까지 완전하게 해소하는 수준으로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질적 통합 단계는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벗어나서 1민족, 1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교육제도도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여 점차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통해 이질적인 체제를 완전히 해소하여 남북이 합의하는 평화 이념 기조의 표준형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획일적인 표준형으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 실정이나 그간의 이질적인 요소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무리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로운 표준형 교육제도는 실질적인 통합단계의 원칙과 기존 남북연합 시기의 교육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몇 가지 중점 사항을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평생교육체제를 수립하고, 남북한 지역은 물론 각 개인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며, 개인의 적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의 자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특히 남북 지역 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 단계는 민족의 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출신 계층, 지역,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재산 여부 등의 어떤 사회적 조건과도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간 의무교육 여건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교육연한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나가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출신 성분에 따라 차별하는 제도도 완전히 폐지하고 어떤 사회적 조건 속에서도 교육기회가 제약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새로운 교육제도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과정 속에서 기능주의적 통합 방식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남북한 실질적인 교육통합은 표준형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구현될 수 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교육제도가 공존하면서 서로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교육제도를 발전시킨 경험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통합 단계에 들어서면서 초반에는 공식적으로 표준형 교육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따라 실천·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교육제도의 실제 통합 방안

(1) 남북한 기본 학제의 개편·통합

학제는 특정 사회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을 형성시켜 나가는 교육제도의 가장 중요한 틀이다. 남북 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통합 이전 단계에서 남북한간의 학제는 여전히 많은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각 단계별 수업 연한은 부분적으로 보완·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으며, 특히 고등교육과 전문직업교육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남북한 학제를 개편·통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학제 통합 방안

학제는 우리 민족의 특성과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국제 사회에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기회도 최대한 보장하고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지속적으로 발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기본 학제는 유·5·3·4·4제를 표준형으로 하여 개편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지만, 초·중등 교육 총 12년의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5년제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제공하며, 3년제 전기 중등학교는 전기중등보통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4년제 후기 중등학교는 후기중등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며, 4년제 대학은 학술과 직업 계열의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으로 두도록 한다.

- 남북한 실질적 단계의 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자치 원칙에 입각하여 초·중등 총 12년의 범위 안에서 표준형 학제 이외에 교육단계별로 수업연한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예컨대 6·3·3·4제 혹은 5·5·2·4제 등도 허용한다. 다만, 이 때는 표준형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실정에 따라 초·중등학교 병설형, 중등 통합형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중등교육제도는 적성에 따른 진로를 확립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 중등단계는 진로 탐색기로 운영하며, 후기 중등단계의 전반 2년은 진로 탐색 심화기로 하고 후반 2년은 진로 준비기로 설정·운영한다. 한편 후기 중등교육기관은 종합학교형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일반계, 실업계와 예·체능계 등 특수목적형 학교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능력에 따른 교육, 그리고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인 진급 제도를 두며, 졸업 기준도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능력에 따라 진급하도록 하며, 유급제는 학생 및 학교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한다.
- 졸업 기준을 표준화하여 타 지역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학력 인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명칭은 전면 개칭하도록 하며, 계급적이고 개인 우상화 측면이 강조되는 명칭은 폐지하도록 한다. 학교 명칭은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로 개칭하며, 개인 우상화 차원에서 명명한 학교는 지역이나 학교의 특수성에 맞게 개명하도록 한다.

○ 고등교육기관은 사회의 분화 발전에 따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다양화하도록 한다.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직업 기술 중심 대학, 평생교육을 중시하는 개방형 대학 등으로 분화시킨다.

○ 특별학제는 원칙적으로 5·3·4·4제를 표준형으로 하여 개편한다. 그러

나 총 16년의 범위 안에서 학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업연한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특수재능계 학교는 특수전문계와 특수목적계로 구분하며, 전지는 주로 예능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 학교 단계를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초등 단계부터 조기에 분화하도록 한다. 반면에 후지는 주로 과학·어학·체육 등을 대상으로 하여 중등 단계부터 분화하도록 한다.
- 장애아 특수학교는 유치원 과정부터 전문대학 과정까지 설치하여 학교 단계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의무교육 이후의 학교 체제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급 중학교 단계부터 각종학교를 설치하도록 한다.

(나) 예상문제점 및 대책

학제를 개편·통합하는 것은 학교교육 전반을 조정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수업연한의 조정, 각 교육단계의 교육목표 재정립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체제를 전면 재조정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주요한 문제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 수업연한 및 각 교육단계별 연한을 재정립함에 따라 학생을 재배치하게 됨으로써 학력의 연계성 단절, 학교 시설의 과부족, 그리고 교사의 과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남한 지역은 현재의 학제와 표준형 학제를 비교해 볼 때 초등단계가 1년 줄고 그 대신에 후기중등단계가 1년 늘어나는 등 상대적으로 개혁이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 지역은 총 수업연한이 2년 짧아 수업연한을 연장하는데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개편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통합의 효과를 보게 되고 동질성도 확보할 수 있지만, 학력의 연계성 및 교육시설·교사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상 학년으로 진급하는 경우는 앞서 제기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지만 어차피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상

급학교에 일정 기간 학년간 공백이 생기게 되며 인재 양성의 단절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사회가 요청하는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의 인력 수요와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을 중시하여 조기 개편론을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학력간 단절 문제는 별도의 보충 교재를 작성하여 일정 기간 보충하는 기회를 주어 단절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교사의 과부족 문제는 교육단계간 수요를 조사하여 재배치할 수 있어야 하며, 재배치한 교사에게는 현직 연수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한다. 수업연한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을 통해 교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시설이 부족한 문제는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초등학교 단계는 2부제 수업도 검토하면서 연차적으로 학교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등학교 단계는 과도기 동안 주변시설을 임차하거나 이도 어려울 경우는 학급 정원을 증가시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후기 중등교육단계를 4년으로 연장하고 진로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 따른 교사 확보, 시설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후기 중등교육기관은 지역 실정에 따라 일반계, 실업계, 예·체능계와 과학계 등 특수목적계도 허용하지만, 진로교육 강화 및 기회 균등 차원에서 종합학교형을 많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종합형은 현재의 병설식 종합학교가 아니고 여러 과정을 설치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방적인 시설과 단일학교 계열보다 많은 교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으로 교사 및 시설 확보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어 보다 많은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범대학의 복수전공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설 확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고등학교 건물을 개방형으로 건축하거나 개조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지역의 혁명 학원과 같은 특수층 학교의 개편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특정 계층이나 세력을 위한 학교는 실질적 통합 단계의 한국 사회 이념으로 볼 때 존속될 수 없다. 이 학교도 보편적인 학교로 개편하

고, 이 학교의 학생들도 일반학교의 학생으로 전학시켜야 할 것이다.

(2) 취학전 교육제도의 통합

남북한의 취학전 교육은 형식적으로는 탁아소와 유치원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여 취학전 교육의 목적, 설립배경 및 설치 운영 방법, 취원 상황, 그리고 국가 사회의 관심 및 공적 부담 상황 등에 대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취학전 교육은 심신의 건전한 발육을 조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지만, 국가의 공부담 비율이 낮아 교육기회 제공이 미흡하며 복지 성향도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을 양성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 수단적인 특성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기교육과 국가·사회 부담을 강조하며 유치원 높은반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등 거의 보편적인 기회 수준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양측이 추구하는 이념과 체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요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가) 통합 방안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는 자율을 바탕으로 하여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취학전 교육은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며, 자유 의사에 의해 취원하는 방식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이나 계층에 구애됨이 없이 원하는 자는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주민들의 교육비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비는 차별화하는 방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무상 공교육화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 보육원 교육과 유치원 교육으로 구성하며, 심신의 건전한 발달에 목

적을 두도록 한다. 그런데 보육원 교육은 원칙적으로 2~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유치원 교육은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 취학전 단계 중 우선적으로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화 하여 국가·사회 부담과 수익자 부담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농·어촌 영세 농, 도시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사회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부모 및 학생의 자유의사를 통해 취원하도록 하며, 교육기관은 다양한 형식으로 설치하여 공·사립이 병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낙후 지역에는 공립, 발전 지역에는 사립으로 설치하는 것 또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취학전 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자유 의사에 따라 취원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높은반의 의무교육 혜택을 받고 있던 북측 주민들이 교육비 부담을 새로이 가지게 되면서 상당한 정도의 불만을 제기할 것이다.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북측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게 되어 어느 정도의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측에 비해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낮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이 높아져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일정 기간 차별적으로 높은반 교육은 무상화하도록 한다.

둘째, 유치원 낮은반과 보육원 교육 단계의 무상화가 원칙적으로 철회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따른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남북연합 단계까지만 하여도 북한의 취학전 교육은 무상이었지만, 유치원 교육만 공교육체제로 전환됨으로써 대부분의 북측 주민들이 교육비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 실질적인 통합 단계에서 북측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져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유치원 낮은반 교육은 과도기

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로 인해 통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원인사를 적극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북한 지역에 대한 취학전 교육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과도기적으로 유치원 교육을 무상화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적립된 통일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요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경비 소요 추정을 합리적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3) 의무교육제도의 개편·통합

남북한의 의무교육은 의무 연한, 무상화 정도, 그리고 교육내용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어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 의무교육 연한과 단계에 있어서 북한은 11년으로 남한보다 길고, 유치원 단계와 후기중등단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남북한은 무상화 정도가 다른 상황에서 교육경비 지원 방식도 남한은 국가 예산이 대부분인 반면에, 북한은 국가, 지방, 기업소 등의 출자 방식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은 남북한이 모두 높지만 근본적으로 사회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로 나아가게 될 때는 당연히 개편·통합되어야 한다.

(가) 통합방안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의무교육은 보편적인 국민교육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0년의 의무교육을 목표로 한다. 초반기에는 전기 중등단계까지 설정하여 남북 지역간의 교육여건을 균등하게 구축한 후에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의무교육 연한은 10년간(6~15세)으로 후기 중등교육단계 중반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남북한 실질적인 통합을 이룬 초반기에는 8년간 초급중학 단계까지 실시하여 내실을 다진 후 연

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10년 의무교육은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직업계 학교부터 시작하며, 점차 종합계, 예·체능계, 일반계 과정·학교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북한 지역 의무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중점 추진하도록 한다. 그래서 남한 지역과 같이 교과서를 무상 공급하고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도서벽지의 교육 시설과 설비를 우선 확충·개선하고 급식도 실비 혹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의무교육을 표준형으로 개편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북측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주요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의무교육 단계를 1차 전기중등단계까지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북한 지역 학생 및 학부모들은 후기 중등단계의 교육비를 부담하는데 따른 불만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의무교육 단계를 후기 중등교육단계까지 연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남한 의무교육과의 여건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 소요가 막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5년 내에 성취한 후 곧바로 연장하겠다는 취지를 적극 홍보하도록 한다. 그와 동시에 당면 실천 사업으로서 후기중등단계 학생 중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무상 직업교육의 혜택을 주는 등 교육복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 지역의 의무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많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미 조성하고 있는 통일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낙후된 북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북한 지역 학교와 결연을 맺어 지원하거나 자매학교들이 교류하면서

적극 돕는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4) 고등교육 제도의 개편·통합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고등교육은 미래 사회발전을 주도할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중시해야 할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통합 단계에서 고등교육도 사회체제의 재편에 따라 새롭게 개편·통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남북의 고등교육은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어 통합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남한은 정규 고등교육 위주의 체제로서 대학에 문호를 개방하여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성인고등교육 위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정규 고등교육 기회는 특수계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학 체제도 이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상호 이질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인문사회계열 대학의 제한성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체제도 대폭 개편·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가) 통합방안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고등교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인력을 충실하게 길러낼 수 있도록 전문화·특성화하는 방식으로 재편한다. 그리고 남북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적인 바탕 위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2~3년제 전문대학, 4~6년제 일반대학, 2~4년제 산업계 대학으로 종별화하며, 학술학위와 구별되는 전문학위제를 신설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은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고, 일반대학은 학술 인력과 고급 직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계 대학은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 권역별로 소수의 종합대학과 특성화된 단과대학으로 구분·육성하며,

- 북한 지역에는 인문 사회계 단과대학을 대폭 신설하도록 한다.
- 남북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을 적정 배치한다.
- 북한 지역의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대학은 폐쇄하는 대신에 인문사회계 단과대학을 대폭 신설한다.
- 사회 추세를 감안하여 단설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며, 대학의 교육과정 이수방식은 학부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 전문 연구기관에 학부가 없는 단설 전문대학원의 설치를 허용하여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급변하는 사회 추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분화된 전공학과별로 선별하여 이수하는 방식을 개편하여 학부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새로운 고등교육체제로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수립하도록 한다.
- 이는 주로 북한 지역의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
- 남북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권역별 종합대학을 설립하고, 인문사회계 단과대학 신설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한다.
- 고등교육 지원정책으로 통일기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기업이 투자할 때 손비 인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다.
- 학생 선발은 자유경쟁을 통한 능력 중심의 선발을 원칙으로 하지만, 남북간 균형발전과 교류를 위해 지역별 인재 할당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 학생 선발은 자유 경쟁에 따라 능력 중심으로 선발하면서도 단순 총점제 중심의 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전인교육 차원에서 지필검사 외에 특별활동과 내신성적을 반영하여 각 영역별로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중에서 대학이 선발하도록 하는 종합 사정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학 자율로 학생을 모집하면서도 남한지역의 대학은 일정 수의 북한 지역 학생을 추천과 시험 방식으로 수용하고, 북한 지역 대학도 마찬가지로

가지 방식으로 일정 수의 남한 지역 학생을 수용하도록 한다.

(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남북한의 고등교육체제가 전혀 이질적인 상황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그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었던 북한 지역이 새로운 인문사회교육체제를 수립하는데 대해 많은 갈등을 느낄 것이다. 북한의 인문사회계 고등교육은 대체로 김일성종합대학이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공산주의 유물사관과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고등교육 개방정책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 체제와 관련하여 교조적이고 폐쇄사회적인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남북연합단계를 거쳐서 고등교육 차원의 개혁이 수행되고 있지만, 완전 이질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인문사회 전문교육을 수용하는데 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평화교육 내용을 기초로 하는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인문사회교육 중심의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 북한 지역인사가 주관하고 남한의 전문인사가 자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다만, 신속하게 인문사회교육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내용의 수용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개경쟁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됨에 따라 북한 지역 출신 학생들이 경쟁력이 미흡한 관계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 지역의 중심대학들은 직통생 제도를 두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추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출신 성분이 좋은 자, 혹은 특수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권위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 속에서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이들이 적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남북 지역간 교육의 질을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북한 지역은 학습 참고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공정한 룰에 따른 입시 준비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할 때 남한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입시 경쟁에서의 탈락, 그리고

자율적이고 다양한 사회에서의 진로 설정의 어려움 등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 인재 할당제를 정착시키고 후기 중등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이 절실한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 지역 대학에 교수 충원과 시설, 설비 등의 확보, 고등교육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체제의 개편·확충 등으로 인해 교육계열 및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교수 충원 및 시설·설비를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남한 지역 대학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과제 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 지역의 유희 고급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시설·설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 지역의 대학·기업 등과 연계·제휴활동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국가 차원에서 통일기금을 지원하는 방식과 자율 모금 방식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5) 성인교육제도의 개편·통합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기존의 가치와 체제를 발전적으로 재건하는 방향 속에서 성인들이 평생교육 이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온 사회의 인텔리화 정책, 이론과 실천 그리고 교육과 생산노동의 연계 방침에 따라 성인고등교육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정치사상교육을 우선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수성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한은 개방적인 교육체제에 바탕하여 학력 보충, 지식 기술 습득 등 목적 중심의 활동 외에 교양·취미 활동을 돕는 차원의 교육도 강조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 동질성을 확보하고 성인들이 통합 이후의 사회에서 새롭게 적응·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가) 통합방안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성인교육은 기본적으로 개방적이면서도 자율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성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남북한 통합에 따라 요청되는 재사회화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성인교육은 방송이나 산업체 부설 교육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개방적이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런 측면에서 비교적 조직화되어 있는 방송대학, 개방대학, 산업체 부설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부, 사회단체, 혹은 시민단체들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시민대학 등을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 성인들의 재교육 및 재사회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교육기관이 앞선 체제를 수립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에 연계시켜 주도록 하며, 취업 알선 등의 유인책도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 학력 보충,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교양·취미 신장 활동 등의 일반적인 목적 이외에 남북한 통합에 따라 소요되는 주민 재사회화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학력 보충을 위한 성인교육은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산업체 부설 대학 등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직업훈련이나 재교육을 위한 성인교육은 개방대학, 직업훈련원, 각종 현직 연수기관을 통하여 실시한다.
- 재사회화 교육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이해와 적응,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초점을 두도록 하며, 각종 방송통신매체, 시민대학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 성인교육 프로그램이 학위 취득에 목적을 두는 경우,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사정 체제를 갖추도록 하며, 학위 취득에 따른 대우도 일반대학 출신과 동등하게 한다.

(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남북한 성인교육체제가 서로 이질적인 요소가 많은 관계로 통합 이후의 성인교육체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지역 성인들이 자본주의적 경쟁체제 및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수용하는데 어려움과 갈등을 느낄 것이다. 북한 성인들은 권위적인 폐쇄 사회에서 수동적으로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북한 지역 성인에 대해 사전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교육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혹은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계몽 홍보활동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실질 통합 초기에 북한 지역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높은 수준의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에 따른 교육 성과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북한 지역은 대체로 성인교육의 소요 경비를 국가, 사회, 기업이 부담해 온 관례가 있어 자신의 경비로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더구나 주민생활 수준이 낮아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통합 초기에는 과도기적으로 북한 지역 성인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용을 요구하지 말고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6) 교육행정제도의 개편·통합

교육행정은 과도기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 교육활동의 구조를 형성하고 제도화하며 교육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영도기능과 지원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는 남북의 교육행정제도도 통합하여 우리 교육을 새롭게 구조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교육행정제도는 이념과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나온 관계로 통합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다. 북한은 정치 우선론에 입각하여 중앙집권적이며 행정조직이 위원회식 집행 조직의 성격이 강한 편이다. 반면에 남

한은 당정이 분리되어 전문화되어 있고 교육자치를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독립제 집행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실질 통합단계에서는 교육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제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 통합방안

남북한 실질적 통합 단계의 교육행정제도는 우선 초반기에 제반 교육체제를 정비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영도와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그리고 과도기간 이후에는 교육행정이 자율화되고 전문화되어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남북한 실질적인 통합을 이룬 이후 과도기적으로 중앙교육행정의 기능을 강화하여 제반 교육체제를 정비하고, 이 과업이 끝나면 북한 지역에도 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우선 남북한간 통합 이후 3년간 과도적으로 제반 교육활동 조직과 조건을 정비하기 위해 중앙교육행정의 기능을 강화한다.
-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직속의 참모 기관 성격으로서 가칭 ‘교육통합기획처’를 확충·설치한다.
- 남북연합 시점부터 설치한 ‘남북교육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확대·개편하여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 3년간에 걸쳐 제반 교육체제를 정비하고 자율적인 교육행정 풍토가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면 북한 지역에도 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 과도기간 동안 중앙교육행정 기관은 독립제 집행기관으로 하며, 1급 단위로 기획실, 학교정책실, 대학교육정책실, 과학기술교육국, 평생교육국 등을 설치하며, 편수·평가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가칭 ‘국립교육편수·평가청’을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 남북한 인사를 최대한 균형 있게 배치하고, 차관과 1급 단위의 부실(국)장은 기관장과 1급 단위 장 출신 이외 지역 인사로 보하도록 한다.

- 교육과정 편찬과 평가 업무가 전문성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업무는 가칭 ‘국립교육편수·평가청’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시·도와 시·군의 2층제로 조직하며,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의 고유 업무 혹은 중앙의 위임 업무를 기획·집행하고, 시·군 교육청은 지역 특성에 맞게 집행하는데 중점을 둔다.
- 시·도 교육청은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과학기술교육국, 사무국을 둔다.
- 시·군 교육청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총무과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교육행정의 자율화, 전문화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은 정치 우선, 중앙 집권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남한과 다른 점이 너무 많고 통합하는데 있어서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런 측면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 교육행정 요원들이 교육행정의 원리와 관장 범위가 달라지는 것과 관련하여 갈등 및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북한교육행정은 당이 영도하고 일반행정조직이 집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여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계획경제체제로 ‘교육위원회’라는 합의제 집행조직을 통해서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율성도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행정이 전문화되어 지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정책적인 문제까지 관장하는 것에 대해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문적인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 남북 지역의 교육행정 경험이 너무 달라서 차별화하는데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남북간에 차이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교육정책도 남북을 별도로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을 남한 지역과 달리 특수 지역을 보고 정책을 수립·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 교육자치의 경험이 없어 이를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교육자치는 자율적인 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런 경험과 수행 능력이 남북한 통합 초기에는 없다고 여겨지므로 과도기 동안에 교육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2. 교육과정 통합 방안

가. 교육과정·교과서 통합의 기본 전제와 방향

(1) 기본전제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먼저 남북 통합의 과정과 방법은 이미 제Ⅲ장에서 논의한 바 있다. 제Ⅲ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 교육통합의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의 전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통일의 과정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남북한 당국자가 협상을 통하여 통일을 성취하려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이미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여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민족교육공동체 건설과 관련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남북한 교육의 이질성을 점차 해소하면서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기능주의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상호간의 접촉·교류가 가능한 분야부터 통합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비정치적, 물적인 교류와 협력을 우선시하며, 단계적,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남북한은 교육분야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한다. 현실적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야에서 남북한은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산재해 있다.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동질화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남북한간에는 동질적인 요소 또한 무시할 수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에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려면 교육분야에서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의 동질성은 민족동질성을 확보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남북한이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교육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남북한이 교육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통일방안에 의하면 통일의 과정을 교류·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실질적 통합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이 3단계의 통일단계에 있어서 교육분야의 통합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협력단계에서는 남북간에 인적·물적인 면에서 초보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분야의 각종 자료를 상호교화하고 각기 독자적으로 연구조사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조사 결과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표·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학술분야의 연구 조사 작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데, 이를 위하여 연구진이 상대 지역을 상호 방문하여 자료수집 또는 조사작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남북한의 전문가가 합동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공동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교육통합에 대한 시범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교류·협력단계에서는 남북한 독자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는데 비해서 연합국가단계에서는 공통의 주제를 선정하여 협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 분야에서 남북한의 공동 자료를 개발하고, 표준교육과정의 시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비이념적인 교과 영역에서는 공동시안을 남북한이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는 남북한 당국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남북한이 통일된 표준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교과서를 개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통일시기를 202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약 20년의 통일준비과정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교육통합을 준비한다면 통일국가에서 표준교육과정을 적용하는데 큰 무리

는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변화하는 통일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 준비가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국가단계에서도 표준교육과정의 개발과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의 방향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통합의 방향은 교육과정의 이념적 원칙으로서의 방향과 교육과정 구성방식으로서의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이념적 원칙에서는 ‘민족공동체교육’, ‘민주시민교육’, ‘창의성교육’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과정 구성 방식에서는 학생의 교과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특별활동을 강화하며, 교과교육에서 지식과 경험, 이론과 실천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교과서 제도를 민주사회에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과정·교과서 통합의 방향을 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남북한이 이질화된 의식을 극복하고 통일된 민족사회를 수립하기 위하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민족의 공통적인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족적인 단결과 연대의식 및 협동정신을 함양하도록 한다.

(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주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

민주주의 이념을 근본으로 하여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민주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며, 특히 다원화된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과 도덕성을 증진시키고, 인류사회의 평

화에 기여하는 보편적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한다.

(다) 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

학생 개인의 자아실현과 전인적 성장 및 창의적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하도록 하며,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의 습득, 그리고 학습능력의 배양에 주력하고, 더불어 비판적 사고력과 같은 고등정신 기능을 계발하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도록 한다.

(라) 학교와 학생의 교과 선택 폭을 확대

선택 및 교양 과목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학교단위에서 교과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고, 학생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과목 선택을 허용하도록 한다.

(마) 다양한 형태의 특별활동을 강화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체능 활동, 단체활동, 사회봉사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특별활동시간을 확충하여 학생의 자유선택으로 실시한다. 특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교사 또는 자원인사를 확보하며, 특별활동 평가를 강화하여 입시에서 내신 성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바) 교과 교육에서 지식과 경험, 이론과 실천의 연계성 강조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며, 교과교육에서 실생활요소를 강화하도록 하며, 실험, 실습, 참관, 현지 참여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교육과 산업체, 생산현장의 연계성을 중시하도록 한다.

(사) 교과서 제도를 민주사회에 적합하도록 개편

교과서 제도를 민주사회에 적합하도록 개편하기 위하여 국정을 폐지하고 검인정제 중심으로 전환하되 국어, 국사, 도덕은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개발기관을 지정하여 3~4종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표준교육과정 하에서 남북한의 언어, 문화의 차이를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남북한 별도의 교과서를 사용하되 점차적으로 같은 종류의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한다.

나.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통합방안

(1) 교육과정의 방향과 목표

(가) 통합의 필요성

남한과 북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합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우선적으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은 교육의 전체과정이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방향을 통합하는 과제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은 유사점보다는 상이점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인간 육성이라는 사회주의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주체사상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집단주의 교육을 지향한다. 또한 북한은 교육원리로서 교육과 실천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추구하면서 실생활에서의 실천과 노동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남한은 민주주의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인격완성, 자아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주지주의적 학습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기도 하다.

한편 남한과 북한의 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공통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지덕체의 전인적 인간형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생활규범, 도덕적인 품성을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표로서 중시하

고 있다. 남한이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전인적 인간형성을 지향하는 반면에 북한은 집단주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기초적인 생활도덕에서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공통점은 남북한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상호이질성을 해소하면서 동질성을 확대해가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남북한의 교육목적이 상호 이질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과정의 방향을 동질화하여 통합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국가에서 지향할 이상적인 교육의 방향에 기초하여, 그리고 현재 남북한 교육이념의 동질적인 요소를 발견하여 남북한 교육과정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통합안

통일국가의 교육이념은 ①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②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주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 ③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한다.

1) 통일국가의 교육이념 설정

- 북한 지역에서는 주체사상에 의한 집단주의 교육이 강조되어온 점을 감안하여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며 자주적 인간을 기르는 교육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 남한 지역에서는 특히 과도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 시민 의식을 기르는 교육의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 가치관 및 개방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에 노력한다.
- 개방화 시대에서 민족의 번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생의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지적 능력을 제고하는 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2) 통일국가의 교육이념에 따른 표준형 교육과정 개발

- 남북한 현행 교육과정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이상적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표준형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한다.
- 표준형 교육과정이란 남북한 교육의 대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여기에서 ‘표준’이란 남북한이 함께 지향해야 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일반 규범을 말한다.
-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을 협의할 ‘교육통합위원회’에 교육이념 분과를 설치하여 통일한국의 교육이념을 정립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 교육통합위원회의 교육이념분과에서는 남북한 교육당국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남북한의 교육이념을 분석하고 통일한국의 새로운 교육이념을 모색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 통일한국의 교육이념 정립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 남북한 교육당국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통합위원회가 주관하여 남북한의 교육이념을 분석하고 통일한국의 교육이념을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 통일한국의 교육이념은 통일한국의 국가이념, 시대 및 사회적 요구에 근거하여 남북한 주민의 광범위한 여론수렴의 과정을 통해 설정한다.
 -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특히 남북한 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상호 확인하고 ‘민족의 복리증진’을 위한 교육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남북한의 상호 이질적인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통합하여 동질성을 추구

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지난 50년 동안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하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동질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작업에는 대단히 복잡한 장애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본질적으로 교육이 추구할 방향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남한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상반된 이념과 목적을 어떠한 방향으로 동질화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통일한국의 국가이념과 체제를 무엇으로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며,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이념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이념에 관한 논의는 남북간의 정치적 과정과 통일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정치적 요인이 교육이념에 어떠한 방향으로 반영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차적인 과정에서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가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호 이질적인 방향과 목표를 동질적인 방향으로 통합해 나가는 절차와 방법상의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남북한이 각기 자기에게 익숙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교육의 목표가 설정되기를 고집한다면 어떠한 합의도 도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남북한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교육목표와 방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인식과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서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교육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식

(가) 통합의 필요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식의 통합방안 모색은 곧 통일한국의 교육과정 운영 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중앙, 지방, 학교 사이의 교

육과정 결정권한 분배, 교육과정 개발기구의 조직, 교육과정 문서의 기본 체제 및 성격 등에 관하여 남북한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통일한국의 교육과정이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게 될 것이다. 남북한은 이제까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 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남한은 특히 제6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재량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분권화의 정도가 북한보다는 많다고 하겠다.

통일 이후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적어도 통일 초기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이질성을 조기에 극복하고 교육과정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북간의 이질성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차이점이 올바르게 고려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융통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교과목별 교육목표와 주요 학습내용 및 수준에 대한 개략적인 지침을 제시해주되, 구체적인 학습내용 및 자료의 선정에서는 지역 및 학교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방식을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통합안

국가수준에서 표준 교육과정의 기본구조를 제정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되 표준 교육과정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 학생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도 및 학교 수준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 국가 수준의 표준교육과정 개발

-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중앙, 지방, 학교 단위의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중앙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교육과정의 목표(기르고자 하는 인간상)
 - 개설 교과목의 종류 및 필수·선택 구분(교과 편제)
 - 과목별 이수단위수(시간수)의 개략적 범위(잠정적으로는 남북한간 이수시간상의 상이점 인정)
 - 교과목별 교육목표 또는 교육 중점
 - 교과목별 주요 학습내용 및 수준
 - 지방교육청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지역별 교육중점에 관한 사항(특히 남한과 북한 지역간의 상호이해 교육 중점사항)
 - 지역별 특성의 반영 방안(학습소재의 지역화 등)
 - 학교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 선택 교과목의 결정
 - 구체적 학습 내용의 조직
 - 교과목별 이수시간 결정
 - 표준 교육과정 문서의 체제는 교육통합위원회(교육과정 분과)가 남한의 '교육과정', '교육과정 해설서' 및 북한의 '과정안', '교수요건'을 참조하여 결정하되,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교육과정의 법적 지위 및 성격
 - 개설 교과목의 종류 및 필수/선택 구분
 - 과목별 시간배당에 관한 일반 지침
 - 시·도 및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지침
 - 교과목별 학습목표 및 주요학습 내용
- 2)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지속적 연구 추진
- 표준 교육과정의 총론·각론 개발 및 지속적 질관리를 위해 '교육과정개발본부(가칭)'를 상설 기관으로 설치·운영한다.
 - 교육과정개발본부는 독립적 연구기관으로 하되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 구성인원은 남북한의 교육학자 및 교과 교육전문가 등으로 하며 교사

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교육과정개발본부는 총론 및 각론의 개발, 교육과정의 평가 및 개정,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심의, 교육과정 관련 조사·연구 업무 등을 수행한다.
- 교육통합위원회에 교육과정분과를 설치하고 이 분과에 교과별 소위원회를 둔다.
- 교육과정 분과의 구성인원은 남한의 교육부 편수국 편수관리관과 북한의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출판지도처 편수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남북한의 교육학자와 교과교육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 교육과정 분과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표준 교육과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 남북한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교과편제, 교과별 주요내용 및 수준)
 - 남북한 교육과정의 수준 분석 및 학생 학력수준 평가
 - 표준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학력 보충 교육방안 수립
 - 통일국가 단계에서 적용할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 표준 교육과정의 편제 제정
 - 과목별 학습내용의 결정
 - 표준 교육과정의 시범 작용(실험학교 운영)
- 교과별 교육내용에 대한 남북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 교육 및 학술 용어에 관한 공동연구 및 통합안 마련
 - 국어 및 역사에 관한 공동연구
- 표준 교육과정의 적용에 대비하여 필요한 교과는 남북한 별로 학력 보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남북한은 표준 교육과정의 과목별 학습수준에 비추어 부족한 내용에 대해 보충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에 힘쓴다.

(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 및 학교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방식과, 특히 지방 및 학교의 재량권의 폭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될 수 있을 것이다. 동질성의 회복이나 교육의 질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중앙정부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자 할 것이며, 지방의 자율권이나 다양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분권화 정책을 옹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에서는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지방학교 사이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통일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분권화 방식에 익숙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지방이나 학교가 주어진 재량권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방식에 대한 연수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교육과정 편제

(가) 통합의 필요성

교육과정의 편제는 학교급별로 개설되어야 할 교과목의 종류 및 교과목의 상대적 비중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교육과정 통합의 첫 출발점은 교육과정 편제의 통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특히 사상 관련 분야에 있어서 개설 교과목 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교과별 비중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일면 다양성의 조장이라는 측면에서 권장될 수도 있으나, 적어도 개설 가능 교과목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교육통합 및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통합안

교육과정의 편제는 남북한의 교육동질성을 추구하고 교육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도모하도록 하며, 학생의 다양한 학습활동, 과외활동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 교육과정 기본편제의 구성

- 학급별로 최소한의 공통 필수과목을 지정하되 남북한별, 또는 지역 및 학교별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과목선택상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 공통 필수과목은 국어, 국사, 윤리 등 민족공동체 의식 및 민주시민 의식형성에 필요한 과목과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목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 통일한국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태도와 공통적 가치관의 함양을 위해 윤리 교과에서 통일관련 내용을 보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킨다.
 - 한민족의 전통적 가치관
 - 상이한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이를 합리적·평화적으로 조정하는 능력
 - 통일 이후 야기되는 사회문제 인식 및 대응방향 제시
 -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와 화합을 증진할 수 있는 내용
- 사회교과를 비롯하여 해당 교과목을 개편하여 통일한국의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태도, 가치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사회교과(역사, 지리, 정치경제 등)에서 북한 및 남북한 비교 부분을 확대
 - 각 교과(예체능 등)에서도 북한 및 남북한 비교부분 반영
- 특히 정치 사상 관련 과목은 남북한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통필수과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되 남북한 어느 한쪽의 이념과 체제만을 강조하는 편파적인 과목(김일성 우상화 과목 등)은 폐지하도록 한다.

- 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진로에 적합한 교육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교과를 개설한다.
- 과목별 이수시간은 지역별·학교별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제하지 않도록 한다.
- 학제 통합 방안에 따라 기본학제는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4년으로 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제를 구성한다.
- 유치원 및 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통합교과를 도입한다.
- 초급중학교는 진로탐색기로 설정하여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흥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고급중학교의 전반 2년은 진로탐색심화기로, 후반 2년은 진로준비기로 설정하고, 후반 2년에는 일반계, 실업계, 예체능계 등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2) 교육과정 편제상 과외활동의 확대·강화

- 학생의 개성신장을 위해 교과활동 이외의 시간을 활용, 다양한 과외활동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 과외 활동의 주요내용은 예·체능 심화교육(1인 1기 교육), 단체 수련활동, 직업·기능 교육(컴퓨터 등), 취미활동 등으로 한다.
- 다양한 형태의 과외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여건을 확충한다.
- 과외활동의 담당교사는 전담교사 또는 자원인사를 확보하여 활용한다.
- 개인별 과외활동을 학교내 활동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지도교사 등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 다양한 과외활동의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과정 기본편제의 시안 구성

- 남북한의 현행 교육과정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의 기본편제를 구성한

다.

- 교육과정 기본편제는 교과활동을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하고, 과외활동을 기본편제에 포함시킨다.
- 교과별 시간배당 기준은 남북한의 현행 교육과정 편제에 기초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설정한다.
- 전술한 교육통합위원회 교육과정 분과에서 표준 교육과정의 기본편제를 제정한다.
-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남북 연합 단계에서부터 편파적인 과목은 폐지한다.(북한: 김일성 우상화과목, 남한: 반공 관련 내용)
- 남북한 상호이해 증진과 화합을 위한 교과목을 설정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표준 교육과정의 적용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실시한다.
- 교원 연수
- 교과서 등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 남북한 학력 보상 교육
-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남북학생 공동수련회, 자매결연활동, 상호방문 수학여행 등을 적극 실천한다.

(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남북한 사이에는 개설 교과목의 종류와 시간배당 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통일 교육과정 편제를 구안하는 과정에서 의견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예컨대 북한 지역에서 김일성 부자 관련 교과를 계속 개설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일단 ‘편파적인 과목’은 폐지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목당 시간배당의 문제는 교원 수급 등 외적 여건과도 관련되는 문제인 만큼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해주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과목당 ‘시간배당기준’은 제시하되,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 교육내용 구성의 방향

(가) 통합의 필요성

남북한 교육의 실질적인 통합은 궁극적으로 교육내용의 통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모든 교육제도가 통합된다고 하여도 교육내용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실질적 교육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으로 제도 등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동질적이라면 교육의 통합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교육내용의 통합은 남북한 교육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남북한의 교과별 학습내용은 사상적 지향의 차이, 이론 및 관점에 따른 차이, 언어 및 용어상의 차이, 학년별 학습내용 수준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질성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점은 이질성 극복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상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단기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여기에는 여러 학자들의 공동연구와 논의를 통한 합의가 요구되며,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통합안

교육내용은 남북간에 존재하는 상호이질성을 지양하고 각 교과 영역을 통하여 상호동질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내용의 재구성을 통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습득하도록 하고, 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교육내용 구성의 원칙 설정

- 교과별 교육내용은 전술한 ‘교육과정의 방향과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한다.

-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내용
-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주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내용
- 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내용
- 교과별 학습 영역, 내용 및 수준은 남북한 현행 교육내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한다.
- 교과별 교육내용의 선정시 지식과 경험, 이론과 실천의 연계성을 강조하도록 한다.

2) 통일에 대비하는 재사회화 교육내용 구성

- ‘도덕’ 교과에서는 통일국가의 기본적 이념과 생활규범을 가르치도록 한다.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생활 규범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과 현실
 - 민족의 공통적인 문화와 남북한의 현실
 -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국민의 자세
 - 남북한 어느 한쪽의 이념과 체제만을 편파적으로 강조하는 교과 또는 내용은 폐지하거나 삭제함. 예) 북한의 김일성 관련 교과, 남한의 반공 관련 내용
- 사회(역사, 지리, 정치, 경제), 교과를 통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남한과 북한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한다.
 -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원칙적인 이념과 체제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한다.
 - 남한과 북한의 사회현실에 기초하여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한다.
 - 지식과 경험, 실제 생활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활동중심, 생활요소의 비중을 높인다.

3) 교과별 교육내용의 구성 방향

- 국어 교과는 남북한의 이질적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원칙적으로 국어 교육에서 표준어, 공용어 등의 문제는 남북한 통합 기구에서 결정하는 어문정책에 따른다.
 - 잠정적으로 남북한이 각각 두 개의 표준어(서울말, 평양말)를 사용하고, 2개 표준어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한다.
 - 지방 어문의 특성을 인정하되,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역사 교과는 민족의 공통적인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역사 교과서 개발에 역사관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되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내용을 구성하도록 한다.
 -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거나 어느 한 사관에 편파적으로 치우쳐서 내용을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
 - 역사 교육을 통하여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남북한간의 공통적인 역사적 전통을 강조한다.
- 과학 교과서의 내용 구성
 - 남북한의 공통적인 교육과정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한 간에 학교급별, 학년별 교육내용의 수준 차이가 없도록 구성한다.
 - 기초과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을 강조한다.
 -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의 비중을 높인다.
 - 과학 교육에서 실험, 실습 등 다양한 활동을 강조한다.
- 예·체능 교과서의 내용 구성
 - 예술과 체육을 통하여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 예·체능 분야에서 전통적 요소를 개발하여 교과서 내용 구성에 중요하게 반영한다.
 - 예·체능 교육을 통하여 집단적인 연대 의식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의 주요사항은 관련되는 교과목과 특별활동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한다.
- 근로정신 함양 교육, 전통문화 이해 교육, 환경 교육, 국제문화이해 및 평화 교육, 보건 안전 교육, 성교육, 진로 교육
- 전술한 교육통합위원회 교육과정분과 교과별 소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남북한 현행 교과별 학습내용 및 수준 비교 분석
- 이질적인 교육내용 조정 방안 협의(특히 국어 및 역사)
- 남북한 상호 이해 증진과 화합을 위한 교육내용의 선정 및 적용
- 통일국가 단계에서 적용할 교과별 각론의 개발
- 남북한 학력 보상교육 방안 수립 및 단계적 실천

(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남북한의 교육내용은 같은 교과 안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국어와 역사 및 정치사상 관련 교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들 교과목의 경우 교육내용을 통합하는 데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국어나 역사 등에 있어서 관점의 다양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되, 장기적으로는 학자들의 공동연구의 과정을 통해 동질성을 확대시켜가는 방향으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동연구의 과정에서는 보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의 확인·정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가) 통합의 필요성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통합은 통일한국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교수학습방법에서 지향해야 할 과제를 명료화

함으로써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평가 방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보의 교환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이제까지 나름대로의 교수학습방법을 개발·적용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통일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효율적인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발·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통합안

- 남한 및 북한의 현행 교수 학습방법의 실태 및 장단점을 연구하여 서로의 장점을 살리도록 한다. (예: 탐구학습, 깨우쳐주는 교육, 원문통달식 등)
-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주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학습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 체험활동(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들에게 공동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 학습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 피상적인 지식교육이 되지 않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체적 현상을 학습 소재로 적극 활용한다.
-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 이외의 각종 참고자료, 방송자료, 시청각 기교재, 컴퓨터 등을 활용한다.
- 효과적인 교수 학습방법의 개발, 보급을 위해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
- 교육의 질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 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 국가수준 평가는 절대평가제로 한다.
- 평가방식에서 주관식(서술식) 평가, 실기 평가 및 구술평가를 적극 활용한다.
- 교수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기자재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부분적으로 실천한다.

(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

이상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큰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문제는 이와 같은 이상적인 교수학습방법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조건에 의해 실제 수업 현장에서 충실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다분히 이상적인 교수학습방법이며, 향후 이러한 방법들이 실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자재의 확충 등 지원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6) 교과서의 개발 및 보급

(가) 통합의 필요성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 개발 및 보급 방식을 보면 유사점과 상이점이 공존하고 있다. 유사점으로는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국가 중심의 중앙집중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과서가 지니는 교육적 권위에서 남북한은 정도의 차이는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게 교과서 교육내용을 지식의 중심체계로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교과서 제도에서 남북한은 상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은 교과서 종류가 국정을 제외하면 여러 종류인 반면에 북한은 모든 교과에서 단일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교과서 개발 방식에서도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중앙집중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남한은 보다 개방적인 반면에 북한은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고려하여 교과서 개발 및 보급 방식에서 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개발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질적으로 향상되는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교과서는 보통교육단계에서는 무상으로 보급되도록 하며, 학교현장에서 교과서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나) 통합안

교과서 제도를 민주사회에 적합하도록 개편하기 위하여 국정제도를 폐지하고 검인정제 중심으로 전환하되, 국어, 국사, 윤리는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개발기관을 지정하여 3~4종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표준교육과정 하에서 남북한의 언어, 문화의 차이를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남북한이 별도의 교과서를 사용하되 점차적으로 같은 종류의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한다.

1) 교과서 제도의 개선

- 국정 제도를 폐지하고 검인정제 중심으로 전환하되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한다.
- 국어, 국사, 통일윤리 등의 과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개발기관을 지정하여 한 교과에서 3-4종의 교과서를 개발한다.
- 통일 교육과정 하에서는 남북한 사이의 언어와 용어의 차이를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남북한 지역이 별도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점차적으로 단일 교과서를 개발한다.
- 교과용 도서의 심의를 전술한 교육과정 개발본부가 담당하도록 한다.
- 심의 기준을 엄격히 하고 심사기준 및 과정은 공개하여 공정성을 높인다.
- 과목당 도서 종수를 규정하는 상대평가제를 지양하고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는 도서는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한다.
- 교과용 도서 심의를 보다 체계적이며 심층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상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2) 교과서 보급 및 활용

- 초·중등학교의 모든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교과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과서 발행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 지원하도록 한다.

- 교과서는 지역 또는 학교단위에서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 사용하도록 한다.
- 교수 학습의 과정에서 교과서 내용을 절대적인 권위로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교과별 교과서에 대한 남북한 공동개발 사업을 착수한다.
 - 교육내용에 대한 공동연구, 공동개발
- 남북한의 상호 이해와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교과서를 실제로 수업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사 수준에서 참고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교수 학습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부분적으로 학습 교재로 사용하도록 한다.
- 표준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교과서 심의 기준을 정하고 개인 또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교과서 개발에 착수하도록 한다.
 - 국어, 국사, '윤리' 등의 교과용 도서는 교육통합위원회 교육과정분과가 주관하여 개발한다.

(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

현재 남북한이 교과서와 교육내용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남북한이 교과서를 통합하여 단일 교과서로 개발하는 작업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담겨 있는 교육내용 상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으며, 교과서의 개발 절차, 형식, 체제 등까지도 통합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가로 놓여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과별로 남북한 사이의 언어와 용어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남한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어를 공식적 어문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북한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어를 공식 어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어의 차이뿐만 아니라 용어에서도 차이가 크다. 북한은 한자어와 외래어를 순수 우리말로 고쳐 사용하는데 비해 남한은 한자어와 외래어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볼 때 남북한의 교과서는 한시적으로나마 별도의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일 교육과정 하에서 남북한 사이의 언어와 용어의 차이를 감안하여 남북한지역에서 별도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점차적으로 단일교과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7) 남북한 상호이해 및 학력 보충자료의 개발·보급

(가) 통합의 필요성

교육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의 상호 이질성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편재되어 있다. 민족문화 부문에도, 국가와 사회의 이념과 체제에서도, 교과별 교육내용에서도 남북한의 상호 이질성은 편재되어 있다.

민족의 역사와 언어, 생활 방식에 있어서 남북한의 이질성은 분단 50년 동안 고착되어 온 결과이기도 할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과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남북한은 서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기 때문에 생활태도나 사고방식에서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남북한은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교육내용의 차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수준이나 학습능력 면에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한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적인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문화적 동질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민족의 단일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문화에 기초하는 남북한의 상호 이해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간의 교육과정 차이와 그에 따른 학습수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력보충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나) 통합안

남북한의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민

주적인 생활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각종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남북한의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의 차이로 야기되는 교육결과의 차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학력보충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도 개발·보급한다.

1) 남북한의 상호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분야의 교수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한다.
 - 남북한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에 관한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한다.
 - 남북한의 언어이해 자료(유사어, 상이어 등)를 개발·보급한다.
 - 남북한의 역사 이해 자료: 왜곡된 역사교육과 편파적인 역사 이해를 시정할 수 있는 역사 자료를 개발한다.
- ‘민주시민’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남북한의 주민·학생들에게 통일국가 의 이념과 생활규범을 가르치도록 한다.
 - 북한 주민과 학생에게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 및 체제의 원리와 장점을 소개하고, 자유 민주주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갖도록 한다.
 - 남한 주민과 학생에게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이해 하도록 하며,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북한 주민을 우리 민족 의 일원으로서 애정을 갖고 대접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2) 학력보충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 남북한간 교육과정의 특성과 차이로 인한 교육결과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력보충용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한다.
 - 표준 교육과정이 남북한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이전부터 과도기적으로 교수학습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학력보충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각 교과별로 개발하여 활용한다.
- 남북한 교육 통합위원회 교육과정분과가 주관하여 교수학습 참고자료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한다.
- 민족동질성 회복 자료, 재사회화 자료, 학력보충 자료 등 분야별 연

구진을 구성하여 자료개발 작업을 추진한다.

- 남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수학습 자료 가운데 교환 적용이 가능한 자료를 선정하여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남북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학력 차이를 보충하기 위한 학습자료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주요 문제점으로는 남북한의 이질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즉 남북한의 역사, 문화, 언어의 차이, 그리고 세계관, 가치관의 차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재정립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해당 분야에서 사전에 충분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민족 발전의 전망에 기초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당국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와 공동작업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과 학습내용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습수준, 학습능력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보충하는가의 문제이다. 남북한의 학제 차이, 교육연한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학습수준과 학습능력의 차이로 대치되는가의 문제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보통교육기간(10년)이 남한의 교육기간(12년)에 비해서 짧다는 사실만으로 단순히 북한의 학습수준이 낮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력보충을 위한 자료개발에서는 사전에 학습수준과 학습능력에 대한 평가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연합을 시점으로 하는 실질적 통합단계에서 적용할 남북상호 이해 자료는 단기간 안에 개발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남북연합 이전부터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 과제

1.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보는 통일교육

현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세계는 전쟁과 테러와 같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빈곤과 차별, 인권 유린, 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구조적 폭력이 단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폭력과 비평화의 구조에 대하여 우리는 ‘총체적 위기’ 라거나, ‘전지구적인 문명의 위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비평화의 구조에 대하여 무언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도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처한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실천 활동을 펼쳐 나가기 시작하였는데, 이와 같은 교육적 노력들이 지향하는 바를 ‘평화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화교육은 인간의 삶을 둘러싼 현실의 문제에 대해, 교육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를 둘러싼 총체적 비평화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비평화적 상황을 바로잡아갈 수 있는 ‘평화의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개념으로부터 차별, 불평등,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억압 등의 구조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적극적 개념까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평화의 문제는 개인적 차원으로부터 전지구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의 문제까지를 포괄하는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화는 개인마다 그리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평화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가 존재한 이래로 각 문화와 언어권마다 평화라는 개념에 대한 고유한 의미를 간직하며, 인간의 삶과 관계의 이상적인 모습

으로서 평화를 지향해왔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 속에 존재하는 공통분모들로부터, 평화는 곧 인류가 -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 함께 지향할 수 있고, 동시에 지향해야 할 삶의 질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인류에게 교육을 통하여 인류가 평화의 문화를 실현해 나가야 함을 깨닫게 하였고, 그러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평화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평화교육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다. 모든 사회는 그 사회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구성원들의 평화로운 삶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평화교육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교육의 구체적 실현 형태는 사회마다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이 첨예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과 아랍인의 공존을 위한 '공존교육'(co-existence education)이 평화교육의 구체화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카톨릭교도와 신교도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북아일랜드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교육'(Cultural Heritage)과 '상호이해교육'(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이 바로 평화교육이 구체화된 예이다.

한국 사회에서 평화교육에 대한 논의는 통일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평화를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분단체제이며, 한국 사회에서 통일교육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형태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내에서 평화로운 삶의 질서를 가로막는 요인들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러한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설정하고 창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 한국에서의 평화교육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음으로써 파생되는 다양한 비평화적 현상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대치로 인한 전쟁이나 테러 등 물리적 폭력 상태에 대한 항상적인 잠재 위협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 남북한 사회가 모두 체제 유지와 안보를 위한 사상과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 비민주적인 사회분위기, 전체적인 긴장과 불신의 분위기, 군비확장과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인한 자원의 낭비 등의 헤아릴 수 없는 구조적 폭력이 조직화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 내의 모든 비평화적 현상들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분단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분단이 반세기 넘어 계속되면서 분단 그 자체가 주민들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남북분단의 구조적 성격은 분단의 고착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조가 말 그대로 남북 주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그 나름의 뿌리는 내렸고,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상당 수준의 재생산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내에서 삶의 양식이 분단체제로 인하여 제약되어 있다면, 분단체제의 극복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평화교육은 분단체제의 비평화적 상황을 변화시키고, 남북연합을 기점으로 하는 실질적 교육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2. 향후 평화교육의 과제

가. 북한 사회 이해 교육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최우선의 조건은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상호 이해와 화합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남북한은 통일을 추구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상호 이해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남북한은 상대방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호 적대감을 완전하게 해소하고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남한이 북한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북한 이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남북한은 전쟁과 분단의 과정에서 상호 불신과 반목상태가 첨예화되었다.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부정하고 불신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현재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상호불신과 적대

감을 해소하고 화해·협력의식을 갖도록 하는데도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만약 남북한이 지금과 같은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지 않은 채 대결 구도를 계속해 나간다면, 통일의 길은 멀어질 뿐만 아니라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남북한 주민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남북간에 긴장과 적대감을 씻고 상호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현실적 대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북한을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공동체의 일방이라는 통일관에서 본다면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와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쪽의 특수한 사회 체제를 이해하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마음을 길러야 한다. 그들은 우리와 다름없는 같은 민족이란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에 관한 사실들을 정확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은 그 동안 체제와 이념 교육이 중심을 이루어 왔다. 체제와 이념 중심의 교육은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 북한의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나아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하여 사회문화 중심의 통일교육은 북한 사회의 전반적 특성,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념과 체제 중심의 접근은 남북한이 체제통합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사회문화 중심의 접근은 사회문화적 통합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 방식이다.

북한 이해 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구상해야 한다. 생활문화라고 한다면 이념이나 체제 또는 사상과 제도와 같이 거창하거나 추상적인 소재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문화, 관습, 의식주 생활, 가정생활과 가족관계 또는 자연지리나 관광 자원 등을 말한다.

종래에는 통일교육에서 이념과 체제, 또는 사상과 제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어 왔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암기하도록 하거나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학습내용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통일교육이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기인한다. 또한 이념과 체제에 관한 지식은 학생들에게 남북한의 차이점과 이질성을 부각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으나 남북한의 동질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효과가 적다.

통일교육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대단히 많다. 학생들은 가정생활, 의식주 생활, 가족관계, 생활관습 등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관한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활문화를 소재로 하여 교육을 실천한다면 북한을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세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다른 세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갖고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더불어 그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으로부터 유래된 요소도 있으며, 우리 민족의 전통에서 유래된 요소도 있다. 따라서 남한 사회와 다른 점도 있고 유사점도 있다. 다른 점과 유사점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른 점에 대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유사점에 대해서는 민족의 전통적인 요소에 대한 애정과 함께 사회발전의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방적 자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탈북자들은 남북한 사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 탈북자들의 생활 태도를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남북한 사회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다. 그들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남북한 사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한 사회의 특징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합리주의가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남한 사회는 지나친 이기주의, 금전만능주의, 비인간적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북한 사회는 집단주의, 인정주의, 명분과 자존을 중시하고 가치관이 중심이 되고 있는 반면에, 타율적이고 수동적이며 권위주의, 가부장적인 요소들

이 있다.

한편 탈북자들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거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 사회의 장단점에 대한 자화상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 사회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북한 사회의 장단점을 수용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동안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편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인간의 다양한 모습, 활발하게 움직이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북한 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주민들도 나름대로의 강점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화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동포애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국가적인 역량이나 주민들의 생활 여건 면에서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동포이자 민족으로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들도 우리의 동포애와 화해의식을 이해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적대감을 점차적으로 해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현재로선 북한의 변화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겠지만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고 유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나. 완전한 평화 정착을 위한 교육

평화란 좁은 의미에서는 단순히 전쟁과 분쟁·갈등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평화는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물리적 폭력과 사회적, 심리적 폭력까지 제거되고 인간의 자유와 개성의 발현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적극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을 심어주고 폭력과 갈등을 비롯한 많은 비평화적 요소들에 대항하는 능력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남북한의 평화를 성취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남한 사회 안의 평화를 먼저 중시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의 접근 방향으로서 우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 안에서의 평화, 즉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케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갈등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크게는 이념갈등 아래 지역갈등, 세대갈등, 학력갈등 등으로 인하여 ‘편가르기’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는 평화 저해 요인들에 대한 냉철한 이해와 이를 해소시켜 나가려는 신념과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한다.

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을 위한 기반은 사회정의와 국민복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번영이 통일의 물질적 토대를 이룬다면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의 실현은 국민적 통합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정신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사회 내부의 화합과 평화는 보다 많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이 성과를 보다 평등하게 분배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 측면에서 다원주의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가 보다 존중되는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적 화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교육의 방향으로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평화의식의 배양은 남북한의 냉전체제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갈등과 대립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와 주변국가의 평화 정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분단체제에서 남북간에 심화되어 온 상호 갈등과 적대감, 적개심을 해소하려면 상호 이해와 화해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반도와 주변의 전쟁 가능성을 제거하고 방지하려면 국내외적인 평

화 저해 요인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 주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통일분제는 민족 내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동서독 분단과 달리 한반도 분단이 동서 냉전체제의 성립 이외에 민족 내 이념 갈등에도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는 민족 내부의 이념갈등의 극대화로 냉전의 실제적 대결장이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 냉전체제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전체제 속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간에는 당장의 통일을 논의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으며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는 가운데 평화적 공존 관계부터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을 추구하는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우선시하는 평화와 화해협력이라는 점진적 통일과정을 추구해야 함을 이해시키는데도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갈등을 풀고 분열된 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어느 한 쪽은 정복하거나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려는 과정이다. 따라서 통일 준비는 우선 우리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통일 준비로서 사회적 화합과 안정, 사회복지 실현을 통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의 실현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남한 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통일준비 과업으로서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고대평화연구소 편. 『북한교육의 조명』. 서울: 법문사, 1990.
- 김동규. 『북한학총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서울: 문맥사, 1990.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중앙년감, 1983.
- 김형찬 외.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1990.
- 문용린 외.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서울: 교육정책자문회의, 1990.
- 박재윤.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2.
- 안기성 외. 『남북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 서울: 집문당, 1998.
- 윤덕희 외.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이용필. 『남북한 통합론』. 서울: 인간사랑, 1992.
- 정세구. 『남북한 정치사상 교육 비교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0.
- 정용길 외. 『통일 상황 대비 교육통합 단기대책 연구』. 서울: 교육부, 1996.

조정원. 『남북한 통합론』. 서울: 회성출판사, 1989.

최영표·한만길.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한국교육개발원. 『통일대비 교육부문 대책 종합연구(VI)-급변상황에 의한 통일시의 남북한 교육통합방안』. 1994.

한만길 외.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8.

한만길 외. 『북한 교육 관계 법령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0.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7.

2. 외국문헌

Dedine, J. Richard., Crawford, K. Donna., & Schrupf Fred., *Creating the Peaceable School*. Illinois: Champaign. Research Press, 1994.

Girerd Kathryn & Susan, Koch J. *Conflict Resolution in the Schools*. National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Jossey-Bass, 1996.

Huntington, Samuel.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New Haven: Yale U. Press, 1968.

Schrumpf, F., Crawford, D., and Usadel, H.C., *Jossey-Bass; Peer mediation conflict resolution in schools (Program Guide*, IL: Research Press, 1991.

William, Kradler J. *Teaching Concepts of Peace and Conflict*. MA: Cambridge, Education for Social Responsibility, 1990.

William, Kreidler J., Jim Halligan, and Peterzell, *Creative conflict resolution: More than 2000 activities for keeping peace in the classroom K-6*, Wilson High School : San Francisco Unified School District, 1989.

〈부록 1〉 평화교육 운영 단체 사례 : (가칭) ‘한민족평화교육센터’

남북통일은 정치적 흥정의 일회성을 가진 산물이 아니며 오랜 기간을 두고 다듬고 양육하여야 할 과업이다. 통일과 마찬가지로 평화공존도 일회용적 산물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과업이다. 이런 점에서 평화교육 특히,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평화교육은 요구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평화교육을 남북한 교류의 차원에서 시행하기 위한 교육교류 단체를 설립·운영하는 일이다.

이러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평화교육의 단체는 몇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평화교육을 위한 교류단체는 남한이나 북한의 어느 한쪽만이 주도권을 가지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이러한 조직을 가칭 ‘한민족평화교육센터’라고 명칭하고 이러한 교육체제를 network식으로 운영하며 육성하여야 한다. 이 network식 운영이라는 말은 어느 한 편이 체제상이나 재정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고 각각 독립하면서도, 서로 협조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더불어 이 network은 사이버 network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셋째로, 이 ‘한민족평화교육센터’는 남북한의 주민뿐만 아니라, 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모든 한민족을 한데 묶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른바 한민족 다문화 공동체를 창설하여서 거주지와 문화는 상이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 위하여 서로 인내심과 이해심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넷째로, 현재 남북한의 형편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한민족평화교육센터의 사이버 network의 중심을 서울에 두고 운영하며 평화교육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며 실행하되, 재외동포들도 자기들의 거주지에서 평화교육프로그램을 주최할 수도 있다. 다섯째로, ‘한민족평화교육센터’를 서울과 평양, 그리고 재외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과 통합독립국가에 설치하고 합의에 의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순번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화교육은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일반학교와 재외동포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평화교육프로그램은 ‘한민족평화교육센터’에서 책임을 맡고

실행한다.

무엇보다 ‘한민족평화교육센터’는 평화교육의 일환으로 교원 및 학생이 교류하는 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① 남북 교원 공동의 학술답사를 위한 모임, ② 학생들의 축제 및 학예행사, ③ 체육대회, ④ 민속행사를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모임과 행사는 상호간의 선입견을 벗게 하고 상호이해를 돈독하게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한민족평화교육센터’의 취지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민족평화교육센터’는 남북한과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다.

① 평화에 관한 글짓기

남북의 초등학교 학생부터 고등학교와 대학생까지 참가할 수 있는 생사로서 평화의 정의, 평화의 종류, 평화의 목적, 평화와 인간 평화와 사회, 평화와 환경 평화의 방법 평화를 만드는 기술 등에 관하여 작문을 짓게 하여 학생들에게 평화에 대하여 학습하고 평화를 만드는 방법과 기술을 연마하게 한다.

② 평화그림 그리기

남북한 학생들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행사로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학생까지 실물화, 추상화, 사생화, 또는 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묘사하고자 개인적 평화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게 한다.

③ 평화예술제

남북한 학생들이 음악, 무용, 연극, 발레, 영화 등을 매개체로 사용하여 그들의 평화에 대한 사상, 평화에 대한 갈망, 평화를 성취하는 방법 등을 표현으로 나타내게 장려한다.

④ 평화 연 날리기

남북한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여러 색과 여러 모양, 그리고 크기의 연을 만들어 날리면서 평화를 갈망하는 뜻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게 한다.

이상의 여러 가지 행사는 남북학생들간에 깊고 빈번한 대화가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 만약, 남북정부당국이 학생들의 빈번한 접촉을 바라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와 같은 행사는 적절한 교육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간주된다. 만약 남북당국이 이와 같은 기초적 행사보다는 더욱 의미 있는 교육적 행사를 하기 원한다면, 평화토론회, 분쟁해결을 위한 연극 등도 개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한민족평화교육센터’는 평화교육의 증진을 위한 몇 가지 학술교류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평화교육 자료 교환 및 전시

평화교육은 상호간의 이해를 토대로 증진된다는 점에서 쌍방간의 평화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교환·전시할 필요가 있다. 교환·전시될 내용으로는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보고서, 평화교육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자료, 평화교육에 사용되는 교재 및 교구재 등을 들 수 있다. 교환은 남북한간의 형편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정하고, 전시는 ‘센터’내에 연중으로 기획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② 평화교육 자료 공동 개발 사업

평화교육이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평화교육 자료의 개발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비정치적이고, 비이데올로기적인 평화교육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환경교육은 비정치적인 내용이면서 남북한의 생존과 직결되기도 하는 분야이므로 ‘센터’에서 평화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③ 남북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한민족평화교육센터’는 남북한의 학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물론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남과 북이 바뀌가며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는 별도로 공동학술 행사의 일부를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④ 재외 동포의 학술교류

세계 각지에 산재한 재외동포들에게 조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한민족평화교류센터’를 학술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한민족평화교육센터’를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비무장지대 안에 건립하는 방법일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첨예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평화 증진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을 국내외에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건립 규모는 본관을 비롯하여 교육장(강의동), 도서관, 자료전시관, 운동장, 행사장, 놀이시설, 숙박시설, 식당, 기타 편의 시설을 최소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부록 2> 평화와 평화만들기 교육 사례 (미국의 경우)

◎ 평화와 평화 만들기 학습

(1) 평화 만들기 와 평화 파괴

목적: 평화 만들기와 평화파괴 행동양식은 행동과 사고와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배운다.

형식: 전체 학급 토론과 참여 학급 회의

절차:

1. 그룹에 평화추구자를 설명해 준 후에 다음 질문을 가지고 토론한다.
 - a. 어떻게 평화를 만듭니까?
 - b. 평화추구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 평화는 매일, 매순간, 우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2. 마련된 표에 평화 추구자와 평화 방해자가 취하는 행동, 사고, 감정을 채워넣도록 한다.

	평화 추구자의 행동양식	평화 방해자의 행동양식
행동	협상한다 나눈다 칭찬한다	싸운다 소리지른다 처벌한다
사고	상상한다 존중한다 계획한다	비난한다 거부한다
감정	아낀다 사랑한다 고요하다	증오한다 화낸다 겁낸다

3.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함께 토론한다
 - a. 추구자는 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존중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 b. 방해자는 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존중합니까? 그 대신 무엇을 합니까?
 - c. 추구자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 d. 방해자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합니까? 그 대신 무엇을 합니까?
 - e. 추구자는 우정을 쌓고 관계를 지속시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 f. 방해자는 우정을 쌓고 관계를 지속시킵니까? 그 대신 무엇을 합니까?
 - g. 추구자는 평화를 만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 h. 방해자는 평화를 만듭니까? 그 대신 무엇을 합니까?
4. 학생들이 학교나, 집이나, TV에서 접하게 되는 평화 만들기과 평화 파괴의 예를 들도록 하고, 그 예에 대해서 토의한다.
5.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 날 동안에 학생이 했던 평화 만들기과 평화 파괴 행위들을 가려내도록 하고, 토론한다.
6. 어떤 특정한 행동양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평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한다.

(2) 책임이란.

목적: 행위자로서 책임을 이해한다.

준비물: 신문, Markers

구성 선택: 전체 학급 토론/참여, 학급회의

절차:

1. 학생들에서 아래 보기에 나오는 “나에게 책임은 무슨 의미인가?”를 읽게하고 책임이라는 것은 함께 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2. 반을 네 명이나 다섯 명으로 그룹을 만들고 각 그룹에게 몇 장의 newsprint 와 몇 개의 marker를 준다. 각 그룹에게 그들이 집에서 할 일이나 집안 일 들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3. 각 그룹의 목록을 벽에 붙여 내용을 서로 공유하게 한다.

4. 목록에 있는 일들은 우리가 정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일들을 모두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5. 학생들이 집에서 하는 행동이나 일들을 서로 얘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사하기, 청소하기, 어른을 공경하기에 대한 보기를 들어준다. 학급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으면 소 그룹들에게 두 번째의 목록을 만들게 한다.

6. 두 번째 목록을 첫 번째 목록 옆에 붙이고 그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되어지는 일이 책임이라고 설명한다.

7. 각 그룹의 두 번째 목록을 서로 점검하고 집에서의 책임 중 비슷한 항목들이 있는지 보게 한다

8. 각 그룹에게 집에서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규칙을 만들게 하고 낮은 사람이 그 집으로 이사 왔을 때 그 것을 책임이라고 말 할 수 있도록 한다.

9. 서로 다른 그룹들과 각 자의 아이디어에 대해 서로 얘기 하도록 한다.

10.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당신이 언제나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되어지는 방법.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당신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우할 것이라고 기대되어지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11. 학생들에게 책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쓰게 하고 토론하게 한다.

(3) 권리는 무엇인가?

목적: 권리는 주어진 상태라는 것을 이해한다.

구성 선택: 학급회의

절차:

1. 학생들을 학급회의 형식으로 앉게 하고 이 회의의 목적은 권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2. 학생들에게 우선권 (특권)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특혜의 예를 준다. 예를 들면 만일 다른 일이 먼저 끝났으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 받는다.)

3. 특권과 자유에 대한 내용들을 적게 한다. 몇 개의 보기를 기록하고 특권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또는 같은지를 물어 본다. 자유와 특권은 비슷한 말 이라고 설명한다.

4. 학급전원에게 모든 이에게 주어진 자유와 특권이 권리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뒷 면에 있는 “나에게 있어서 권리란 어떤 의미인가”에 쓰도록 한다.

5. 학생들의 생각을 “학생들은 _____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모아 둔다. 목록에 적힌 내용은 학생들 모두에게 언제나 해당되는 권리로만 한정한다.

6.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권리들은 무엇인지 토론하게 한다. 그 내용을 첫 번째 목록에 덧붙인다.

(4) 권리와 책임

목적 : 권리와 책임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교재 : ‘권리’ 포스터

종이

필기도구

형식 : 전체 학급의 참여와 토론

학급 회의

절차:

1. 앞면에 있는 “권리와 책임“을 참고한다. 책임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권리는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2. 앞장에서 만든 ‘권리’ 포스터를 다시 한 번 살핀다. 권리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고, 학급에서 동의하는 사항을 첨가한다. 권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권리를 즐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만큼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3. 4-5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에 종이와 필기도구를 나누어준다. 포스터

에 적합한 권리들 중에서 몇 개를 각 그룹에 나누어주고, 그 권리에 해당하는 책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말로 설명하게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4. 각 그룹에서 만든 그림이나 설명을 앞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그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게 한다.
5. “나의 권리와 책임”을 참고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을 적어보도록 한다.
6. 각자가 적은 내용을 가지고 토론한다. 권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미 보장된 사항 (언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책임(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강조한다.

(5) 평화 그리기 : 평화라는 말이 나에게 주는 느낌은?

학년 :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

목적 :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의 정의를 내린다.

주제 분야 : 언어 능력, 사회 학습 social studies

준비물 : 종이, 그림도구

절차:

1. 학생들에게 물을 것.
평화를 느꼈을 때를 기억해 보라. 무엇을 하고 있었나? 놀이를 하고 있었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나? 혼자였었나,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였었나? 실내에 있었나, 바깥에 있었나? 주위환경, 색깔, 냄새, 어떤 자세로 있었는가, 등을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기억해 본다. 그때로 되돌아가 본다.
2.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을 가능한 한 자세히 그리게 한다. 어떤 그림은 매우 구체적일 것이며, 다른 그림은 인상만을 그릴 것이다. 만일 학생이 하나 이상의 몇 가지 경우를 기억한다면, 하나 이상

그리게 할 수도 있다.

3. 학생들로 하여금 그림을 서로 돌려보면서, 자신들이 느꼈던 평화의 순간들을 설명하도록 한다. 만일, 어떤 그림이 너무 개인적인 것이라서 학생이 돌려보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토론 질문

- * 그림에서 공통점이 있나요? 그림에서 자주 보이는 주제는 어떤 것이인가요?
- * 각 사람의 기억이나 그림이 어떻게 서로 다른가요?
- *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그림을 보고 느꼈던 감정은 어떠하였나요? 마찬가지로 평화를 느꼈나요?
- * 지금 그린 그림과 다르게 평화를 느꼈던 적이 있나요?

(6) 평화 생각하기

학년 : 초등학교 2- 6학년

목적 : 평화의 개념과 관련성을 알아본다. 평화의 반대가 무엇인지 밝힌다

주제 분야 : 언어 능력, 사회 학습

준비물 : 칠판과 분필 또는 큰 종이와 필기구

방법

1. 두 개의 목록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다. 우선 각 학생들이 들어본 단어 중에서, 평화와 관련된 것을 모아본다. 즉, 학생들에게 떠오른 단어를 평가하지 말고, 기록해 둔다. 그 다음으로는 전쟁이나 폭력과 관련된 단어들을 따로 모아본다.
2. 양쪽에 만들어진 목록을 보고, 단어들을 자세히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다. 특히,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예를 들어 '정적', '반전주의자' 같은 단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 놓는다.
3. 학생들의 답변을 기록하는 다른 방법으로, web chart가 있다. 이

방법은 학생들이 평화와 관련해서 생각해 낸 단어들을,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기록방법은, 이 과정중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연관성을 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목록으로 단어들을 기록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